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맞수

놀랍도록 흡사한 생애: 알렉산더 해밀턴과 아론 버

(The Duel: The Parallel Lives of Alexander Hamilton & Aaron Burr·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오슬기

2017年 7月

# 맞수

## 놀랍도록 흡사한 생애: 알렉산더 해밀턴과 아론 버

(The Duel: The Parallel Lives of Alexander Hamilton & Aaron Burr · 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원 보

오 슬 기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年 7月

오슬기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재원   
위 원 박 경란   
위 원 김 원보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7年 7月



# The Duel

The Parallel Lives of Alexander Hamilton & Aaron Burr  
맞수 놀랍도록 흡사한 생애: 알렉산더 해밀턴과 아론 버

Seul-Ki Oh  
(Supervised by Professor Won-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July, 201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맞수

놀랍도록 흡사한 생애:  
알렉산더 해밀턴과 아론 버

주디스 세인트 조지

오슬기 옮김

“활발한 속도로 정확하게 버와 해밀턴의 결투 이야기를 그리며 두 남자가 공유한 놀랍도록 흡사한 삶에 흥미를 집중 시킨다…그 시대의 복잡한 정치 사향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작가의 능력이 인상적이다.”

- 커쿠스 논평

“흥미진진하고 이해하기 쉬우며…눈을 땔 수가 없다.”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논평

“세인트 조지는 숨겨 있게 대결 형식을 차용하여 두 명의 역사적 인물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더 혼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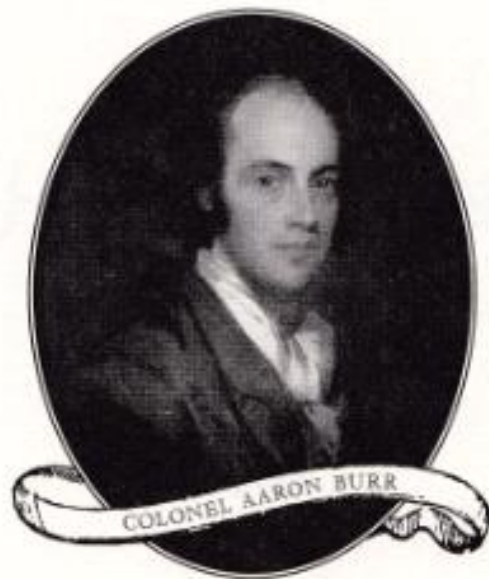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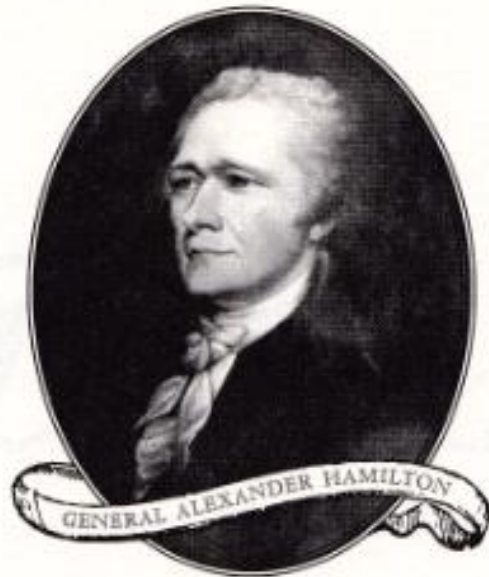
“세인트 조지는 두 인물의 야심이 넘치고 오만한 성격과 가족사 그리고 뛰어난 역사적 역할을 그리면서 이들의 전기를 자세하게 서술했다.”

-어린이 문학

“철저한 조사와 구성으로 버와 해밀턴의 성격과 삶 그리고 그 시대를 통찰력 있게 그려냈다.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다.”

-북리스트

맞수





사랑을 담아 사라, 조, 에밀리 그리고 한나에게

## 목차

|                    |    |
|--------------------|----|
| 프롤로그.....          | 7  |
| 제1장 : 고아가 되어.....  | 8  |
| 제2장 : 학생이 되어.....  | 15 |
| 제3장 : 애국자가 되어..... | 22 |
| 제4장 : 영웅이 되어.....  | 31 |
| 제5장 : 변호사가 되어..... | 40 |
| 제6장 : 정치인이 되어..... | 47 |
| 제7장 : 친구가 되어.....  | 55 |
| 제8장 : 적이 되어.....   | 64 |
| 제9장 : 결투자가 되어..... | 73 |
| 에필로그.....          | 77 |
| 참고문헌.....          | 79 |

## 프롤로그

새벽 4시, 검은 눈,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독립전쟁 대령 출신의 잘생긴 신사가 서재 소파에서 단잠을 자고, 뉴욕 집을 떠났다. 1804년 7월 11일 다소 시원한 여름날 아침, 그의 좋은 친구 윌리엄 반 네스가 함께 했다.

두 남자가 카넬 가에서 배를 타고 있을 때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네 명의 뱃사공은 대령과 반 네스를 태우고 맑고 푸른 허드슨 강을 건넜다. 허드슨 강 곳곳에 이미 고깃배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팰리세이드 절벽이 그들 앞에 어렴풋이 보였다. 행선지는 뉴저지 위하큰이었다. 이 여행의 목적? 결투!

두 시간의 뱃길을 지나 위하큰에 도착한 후, 대령과 반 네스는 좁고 울퉁불퉁한 오솔길을 올라 뉴저지 팰리사이드의 암벽 선반으로 향했다. 강 위로 6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그들은 즉시 코트를 벗고 덩불길을 정리했다.

바위 선반이 스물 두 걸음 정도의 길이, 일곱 걸음 정도의 너비였기에, 이곳이 가장 완벽한 결투 장소였다. 뉴욕과 뉴저지 정부가 결투를 금지했지만, 우거진 나무와 덩불이 이곳을 가려줬다. 다른 한편으론 바위 끝자리에 서면 맨하튼과 뉴저지의 환상적인 해안 절경을 볼 수 있었다. 얇은 갈색 머리카락에 파랗다 못해 보랏빛을 띠는 눈을 가진 또 다른 기품 있는 신사가 뉴욕 타운 하우스에서 새벽 3 시에 일어났다. 1798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장군이 된 남자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새벽 4시가 지났을 쯤, 그의 두 친구 나다니엘 펜들턴과 데이빗 호삭 박사가 도착했다. 마차를 타고 허드슨 강 선창으로 간 그들은 배에 올라타 4.8킬로미터의 허드슨 강을 지나 위하큰으로 향했다.

아침 7시 직전, 위하큰 해안에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해변에 있는 네 명의 뱃사공과 배 한 척을 발견했다. 대령과 그 일행이 이미 도착해 있던 것이다! 배에서 내려 호삭 박사는 뱃사공들과 해변에 남았고, 장군과 펜들턴은 급히 이동했다.

서로 마주치자, 두 명의 결투자, 아론 버 대령과 알렉산더 해밀턴 장군은 격식을 차려 인사를 나눴다.

## 제1장

### 고아가 되어: 1755-1769



해밀턴

서인도제도 네비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알렉산더 해밀턴은 에너지 넘치고, 활기차고 밝은 소년이었다. 알렉스의 가능성을 알아본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유대인 학교로 보냈다. 알렉스가 또래에 비해 작고 왜소해서 선생님은 그를 책상 위에 서게 하고 히브리어로 된 십계명을 낭독하게 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알렉스는 가장 좋아했던 과목인 수학을 가르쳐준 헌신적인 선생님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에게 독서를 시작하게 했다. 어린 알렉스는 그 어떤 것보다 책 읽기를 즐겼다.

알렉스는 카리브 해의 작은 영국령 섬, 네비스에서 1755년 1월 11일에 레이첼 레비엔과 제임스 해밀턴 사이에서 태어났다. 레이첼과 제임스는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들은 또한 절대 결혼 하지 않았다. 레이첼은 이미 요한 라비엔이란 남편이 있었다. 레이첼과 요한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시작부터 그들의 결혼은 불행했다. 1750년 세인트 크로이 섬에서 살던 시절, 요한 라비엔은 레이첼을 두 번의 간통죄로 감옥에 가뒀다.

레이첼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도망쳤다. 오래지 않아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스코틀랜드 계 청년 제임스 해밀턴을 만났다. 레이첼과 제임스는 두 아이를 낳았다. 제임스 주니어는 1753년에 태어났고 알렉스는 2년 뒤에 태어났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이 소년들은 자신들이 점잖은 사람들에게겐 "혼외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겐 "사생아"고 불린다는 걸 너무 빨리 알아버렸다.

아버지 제임스가 1765년 세인트 크로이 섬에서 일을 구하게 되자, 10살이었던 알렉스와 12살 제임스 주니어는 그들의 부모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났다. 약 200평방킬로미터의 아름다운 세인트 크로이 섬은 카리브 해의 보석이었다. 전체 인구 10,000명 중 9,000명이 노예였는데 사탕수수가 그들의 왕이었다. 사탕수수 농장들은 전 세계가 원하는 설탕, 당밀, 럼주를 생산했고, 백인 농장주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다.

하지만 제임스는 농장주가 아니었다. 그가 했던 여타 다른 일들처럼, 새로운 직장은 그에게 성공을 주지 않았다. "내 아버지의 초창기 시절은 엉망진창이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후에 회고했다.

세인트 크로이 섬 크레스천 스테드의 작은 마을 변두리에서 생활하는 것은 알렉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버지는 실패자였고, 어머니는 가십의 대상이자, 감옥에 갔던 과거로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알렉스 눈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알렉스의 삶은 1766년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서 다신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더욱 힘들어졌다.

그러나 레이첼은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세인트 크로이 섬 외곽에서 지역 상인 니콜라스 크루거 밑에서 식료품을 팔기 시작했다. 알렉스도 강한 아이였기에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11살밖에 안됐지만 알렉스는 어머니의 장부를 관리했다. 수학 실력은 그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었다.

식료품 판매만으로 생계유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알렉스는 번창 중인 니콜라스 크루거의 무역 회사에서 경리 업무로 일을 시작했다. 물론, 학교에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알렉스는 시간이 날 때만 학교에 갔다. 적어도 그곳에서 그는 영원한 우정을 맹세한 가장 친한 친구인 네드 스티븐스를 만날 수 있었다.

엄청난 저택과 고풍스런 주택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알렉스의 가족은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멋지고 아름다운 세인트 크로이 섬의 모래사장, 열대 바닷바

람, 그리고 하늘색의 카리브 해의 바닷물은 그들에겐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다 레이첼이 고열로 병이 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회복만이 두 아들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다. 1768년 2월 19일, 레이첼이 집에 유일하게 있는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다. 그 옆에는 깊은 슬픔에 빠진 12살의 알렉스가 역시 열병으로 누워있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알렉스와 제임스는 고아가 되었다. 두 소년에게 세인트 크로이 섬 묘지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었다. 묘지로 가는 어머니의 영구차를 따르며 그들은 검은 베일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 두 형제에겐 어머니를 기억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세인트 크로이 법원은 7년간 만나지도 않았던 레이첼과 라비엔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그녀의 유품을 넘겼다. 그러나 후에 알렉스는 어머니의 책을 받았고, 그는 그것들을 소중히 여겼다.

알렉스와 제임스의 상황은 법원이 사촌인 피터 리턴을 그들의 보호자로 지정했을 때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두 소년은 피터 리턴이 전혀 그들을 챙기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고, 역시나 그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피터는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거의 없었다. 당연히 어린 사촌들에게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나마 피터의 아버지인 제임스 삼촌이 형제에게 방을 내주고, 음식을 주면서 도와줬다.

그러나 1769년 7월, 피터 리턴이 자살하면서 알렉스는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았다. 한 달 후, 삼촌 제임스 리턴도 죽게 된다. 알렉스와 제임스의 유일한 희망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들이 조금 유산을 남겨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형제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알렉스와 제임스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집도 없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동네 사람들의 험담과 모욕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출, 어머니의 죽음을 견디면서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알렉스는 과거에 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책임감 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이었다.



## 버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라한 등장과는 다르게, 1756년 2월 6일 뉴저지 뉴워크에서 100년 전 미국에 터를 잡은 명문가의 축하를 받으며 아론 버는 태어났다.

아론의 어머니 에스더는 유명한 성직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11명의 자녀 중 하나였다. 아론의 아버지 아론 버 시니어는 뉴워크 지역 최초의 장로교회 목사였고 후에 프린스턴 대학이 되는 뉴저지 대학의 총장이었다. 아론과 그의 가족들은 1750년대 여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시민이었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부모 모두가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영국 시민이었다.)

1756년 12월, 아론의 부모님은 10개월 된 아론과 2년 6개월의 그의 누나 샬리를 데리고 뉴저지 프린스턴에 새로 지은 대학 총장 사택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아론이 19개월일 때, 그는 무언가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아버지가 말라리아열로 병이 들어 결국 숨을 거뒀다는 것이었다.

홀로 아론과 샬리를 키우게 된 에스더 버는 친구에게 아론이 누나인 샬리보다 더 똑똑하고 인물도 좋지만, 그리 얌전하지 않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만큼, 에스더는 일찍 아론의 강한 성격을 눈치 챘고, 아들을 “고집스런 소년” 혹은 “다소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능글맞은 말쑥꾸러기” 라 불렀다.

아론의 아버지가 죽고 6주 뒤, 아론이 심하게 아팠을 때, “지저분하다”와 “시끄럽다”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고집스럽다”는 중요했다. “내

아들이 느린 발열 때문에 거의 죽을 뻔 했다” 며 에스더는 몹시 슬퍼했다. 아마도 아론의 굳건하고 고집스런 성격이 어린 나이에도 병을 이겨낼 수 있게 했을 것이다.

다가오는 2월, 아론의 외할아버지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프린스턴에 와서 대학 총장을 맡았다. 그러나 천연두가 뉴저지를 휩쓸었다.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친구인 윌리엄 쉬폰 박사가 에드워드 가족들에게 예방 주사를 놔줬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가 백신에 따른 끔찍한 “이차 발열”에 의해 프린스턴에 온 지 한 달 만에 목숨을 잃는다.

한 달도 안돼서,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빠진 아론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다. 별다른 증세를 보이진 않았지만, 쉬폰 박사가 놓아준 천연두 예방주사가 그녀의 죽음의 원인이었을지도 몰랐다.

혼란스럽고 불행한 아론은 겨우 2살에 고아가 되었다. 설명과 공허한 말들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 그가 오로지 알고 신경 쓰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원인도 모른 채 돌아가셨다는 사실 뿐이었다.

적어도 아론은 고아 알렉스 해밀턴과 같은 노숙자는 아니었다. 윌리엄 쉬폰 박사가 아론과 그의 누나 샬리를 데리고 필라델피아로 돌아갔다. 새 보금자리는 그들에게 익숙한 모든 것이 뿌린 채 뽑힌다는 걸 의미했다.

5개월 후에, 외할머니 사라 에드워드가 필라델피아에 와서 남매를 매사추세츠로 데려가려고 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에드워드 할머니가 이질에 걸리고 만다. 쉬폰 박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필라델피아에 있는 동안 그녀 또한 세상을 떠난다.

믿을 수 없게도, 1년 사이에, 죽음이 아론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의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증조할아버지인 다니엘 버에게 찾아왔다. 상상도 못할 연속적인 죽음으로 아론과 샬리는 천애 고아가 되었다.

쉬폰 가족을 의지하며, 2년간 아론과 샬리는 쉬폰 박사의 멋진 벽돌집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아론은 그곳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의 큰 아들인 티모시 에드워드가 4살 아론과 7살이 되는 샬리의 법적 보호자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시 변했다. 아론은 21살의 티모시 삼촌과 후에 숙모가 되는 로다 오든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아론에게 낯선 사람들이라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법원 명령을 따라야만 했다.

티모시 삼촌과 로다 숙모가 필라델피아에 와서 두 피보호자를 뉴저지의 엘리자베스타운으로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론은 모든 소지품을 싸야 했다. 2년간의 필라델피아 생활과 쉬픈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였다. 슬픈 순간이었다.

아론은 새 집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고아가 된 많은 동생들에게도 티모시 삼촌이 보호자였기 때문에, 엘리자베스타운 집은 사람으로 터질 듯이 가득 찼다. 그리고 티모시 삼촌과 로다 숙모는 거의 매년 새로운 아이를 데리고 왔다.

에스더 버는 그녀의 아들이 고집이 세다고 했었다.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는 그래야만 했다. 4살 아론이 티모시 삼촌에게 “화가 났을 때”, 그는 고집스럽게 도망가 버렸다...잠시 동안이지만. 어느 날엔 아론은 초대받은 노부인의 “점잔 빼는 행동”에 화를 냈다. 그녀가 에드워드 가족 과수원을 거닐자 체리 나무 높은 곳에서 그는 체리를 그녀에게 던져버렸다.

10살이었을 때, 아론은 자유를 찾아 진지하게 도망가려고 했고, 뉴욕으로 향하는 배의 선원으로 등록했다. 티모시 삼촌이 잡으러 쫓아오자, 아론은 돛대 위로 기어 올라가서 삼촌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루 때리듯 채찍질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다.

아론은 고집이 셋을 뿐만이 아니라 노는데 있어서도 기지가 풍부했다. 그는 작은 배를 몰아서 사냥을 하거나 엘리자베스타운 근처의 저수지에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로다 숙모의 남동생 맷 오든과 함께 낚시를 했다. 두 소년은 바닷물고기를 잡으러 아서 킬 해협으로 모험을 가기까지 했다.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티모시 삼촌은 아론과 샬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핑 리브가 그들의 방문 과외 선생님이었다. 샬리가 17살이 되자, 그는 그녀와 결혼한다. 아론은 티모시 삼촌이 위원회로 있는 바버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다. 알렉산더 해밀턴과 마찬가지로 아론은 대단히 총명했고, 모든 과목에서 우수했다.

1767년, 11살 아론은 뉴저지 대학에 지원했다. 하지만 그는 또래에 비해 작고 말랐다. 가름한 달걀형 얼굴과 검은 머리카락 아래로 보이는 짙은 갈색 눈동자는 그를 더욱 어려 보이게 했다. 면접관들은 힐끗 한 번 보고 아론을 거절했다.

뉴저지 대학 총장을 지냈던 분들의 아들이자 손자였던 그를 면접관들이 떨어뜨린 것이었다. 아론은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했다.

아론은 그 다음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거뜬히 합격했다. 아론은 이보다 더 의지가 강할 수 없었다.

## 제2장

### 학생이 되어: 1769-1773



#### 버

13살 아론 버는 뉴저지 대학 입학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받고 2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그는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힘든 교육과정을 견디고 씨름했다. 그는 면접관들에게 3학년으로 입학해도 완벽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침마다 아론은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서 촛불 아래서 공부했다. 낮에도 쉬는 시간 없이 공부했고 밤 9시 전에는 책을 덮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오후에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는 저녁 식사를 건너뛰거나 먹더라도 아주 조금만 먹었다. 남은 평생 동안 압박을 받을 때마다 그는 이런 습관을 따랐다. 그의 방법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효과가 있었다. 첫 시험에서 아주 높은 성적을 받으면서 그는 남은 2년 동안 꽤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아론의 대학생활이 힘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었다. 전체 100명의 학생들이 같이 살면서 3층짜리 석조 건물인 나소 홀에서 수업을 들었다. 새벽 5시마다 기

상중소리가 아론처럼 미리 일어나 있는 사람들 외에 학생들을 깨웠다. 30분 후에 시종들이 방마다 들어가 문을 두드렸다. 반응이 없으면, 시종이 방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억지로 침대에서 끌어내렸다.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다음에 자습을 하고 아침을 먹은 후 4시간의 수업이 이어졌다. 식사시간은 2시간으로 다음 수업이 있기 전까지 주어졌다. 추가 자습과 저녁 기도가 끝난 후, 저녁 식사는 5시에 했고 종든 싫든 9시에 소등했다. 캠퍼스나 프린스턴 마을에 즐길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면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렸다. 나소 홀, 식당, 별관, 소방 창고 그리고 총장실은 아론이 갓난 아이 시절 잠시 살았던 곳이었고, 전체 캠퍼스를 형성했다. 프린스턴 자체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아론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가 시간이 없었는지를 감안했을 때, 그는 유명해 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이와 작은 체구 때문에 “꼬맹이 버”라고 친근하게 알려졌고, 그만의 매력으로 많은 급우들과 친해지면서 그들과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아론의 친구 중 한명인 윌리엄 패터슨은 6년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캠퍼스 근처에 살면서 사람들을 알아가며 전도유망한 학생들을 돕는 사람이었다. 아론 버는 아주 대단히 촉망받는 학생이었다. 윌리엄 패터슨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내 능력 안에서 아론 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군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줬음 좋겠습니다.”

미래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매디슨 역시 뉴저지 대학 학생이었다. 아론과 제임스는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친구가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친하지도 않았다. 경쟁 관계인 문학 사교 클럽에 각각 속했을 때, 스쳐 지나가며 처음 만났다.

아론은 친구 윌리엄 패터슨이 만든 ‘클리오소픽 소사이어티’ 라는 클럽에 가입했고, 반면에 제임스 매디슨은 다른 문학 클럽인 ‘아메리칸 휘그 소사이어티’의 창립자였다. 두 사교 클럽의 회원들은 나소 홀에서 만나서 모욕적인 시를 써 서로 주고받았다. 둘 다 문학 사교 클럽이었기 때문에, 회원들은 그들이 쓴 과제를 큰 소리로 읽기도 했다. 아론은 자신의 과제물에서 싸움은 어리석은 일이고 지적

했다. 몇 년 뒤에 이 과제물은 그에게 문제가 되었다.

마지막 2년 동안은 여유롭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뛰어난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반에서 1등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바닥도 아니었다. 교수님들은 그에게 “영문학 읽기”와 “복잡한 18세기 단어 철자법 문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그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원문 읽기”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16살 아론은 1722년 9월에 “하늘에 성 짓기” 라는 내용의 졸업 연설을 했다. 아주 묘하게도, 그는 청중들에게 미래의 명성과 성공을 꿈꾸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는 그가 일평생을 무시했던 조언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론은 졸업식에서 한 자신의 말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티모스 에드워드 삼촌이 아론의 유산을 현명하게 투자해줘서 아론은 얼마간 꿈만 꾸며 살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 돈을 갖게 되었다. 아론은 때때로 친구 맺 오든과 엘리자베스타운으로 낚시와 사냥을 하러 가곤 했지만, 프린스턴 지역에서 1년을 살았다. 그 때쯤, 아론은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도사가 되었고, 새로 사귄 여성들과 어울리길 좋아했다.

1년을 쉬면서 아론은 많은 책을 읽으며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에게 선택사항이 많지 않았다. 좋은 교육을 받은 청년으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변호사나 의사였고, 아니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따라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헌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2살이었을 때, 아론은 그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나이를 먹으면서 무엇이 가장 좋고 안전한 보상을 제공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을 어디에도 헌신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용이하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부유해질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거부한다는 걸 의미했다.

대학 친구였던 사무엘 스프링은 아론의 부모님이 그가 성직자가 되길 원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 사무엘은 편지에 “너의 존경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하셨던 건 성직자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썼다.

사실이였다. 그래서 그는 성직자가 되기로 했다.

1773년 가을, 17살 아론은 코네티컷의 조셉 벨라미 목사 밑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벨라미 목사는 학생들이 종교적 가르침에 관해 가질 수 있는 반대나 의심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엄한 감독관이었다. 아론은 깊이 빠져들어 공부했지만 누나 샬리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은 느림보라고 하며 “나는 조금 게으름뱅이인가 봐” 라고 썼다.

몇 달 뒤, 아론은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어쩌면 벨라미 목사의 종교적 가르침에 의문을 가지면서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커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즐거웠던 바깥 생활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 겨울에 누나에게 “우드베리에서 온 슬레이로드 사람들이 내가 이제껏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체리럼주를 마시고 있어.” 라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편지를 썼다.

무슨 이유였든, 아론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성직자는 그의 길이 아니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 그도 알지 못했다.



해밀턴

부모도 집도 없는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다행스런 일이 생겼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네드 스티븐스의 부모님이 그를 세인트 크로이 섬으로 데려간 것이었다. 14살 알렉스와 네드는 가장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서로 매우 닮았다. 그들은 둘 다 작았고, 말랐고, 약했으며 똑같이 스코틀랜드 계 특유의 모래 빛 머리카락을 가졌고, 흰 피부에 좋은 혈색을 띄었다. 성격도 똑같았다. 빠르고 영리했고

활기참고 밝았다.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둘을 형제라고 오해했다.

두 사람이 친인척 관계일 가능성은 없었을까? 그들의 놀라운 유사점 때문에 제임스 해밀턴이 아니라 네드의 아버지 토마스 스티븐스가 알렉스의 아버지라는 소문이 있었다. 어느 쪽으로도 결코 입증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두 소년이 이복형제라는 것이고 두 사람이 닮은 것에 충분한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

알렉스의 형 제임스도 집을 찾았다. 그는 하숙 시켜준 목수 아저씨에게 매우 고마워했다. 알렉스와 제임스는 공통점이 없었다. 각자의 계획과 목표에 따라 길을 따로 가게 되면서 두 형제의 관계는 끝을 맺었다.

다행스럽게도 알렉스는 니콜라스 크루거 무역회사에서 경리로 일을 계속 했고, 그곳에서 그의 금융적 기량은 꽃을 피웠다. 그는 화물 운송을 추적했고, 선박 항로를 정했고, 외국 통화로 가격을 산출했으며 깔끔하고 우아한 글씨체로 회사 장부를 작성했다. 알렉스가 무역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은 일은 세인트 크로이 섬의 부유한 사탕수수 농장주에게 아프리카에서 묶여서 온 병들고 야윈 노예들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잔인한 노예무역의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알렉스는 평생 노예 제도를 혐오했다.

알렉스는 많이 배웠지만, 더 많은 걸 원했다. 그는 세인트 크로이 섬을 떠나고 싶어 했다. 가정환경 때문에 멀리 밖에 받지 못했던 이 작은 섬에 왜 그가 더 머물어야만 하는가? 심지어, 세인트 크로이 섬은 그가 꿈꿔온 명성과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못했다.

알렉스는 대학 진학을 위해 뉴욕으로 떠난 네드 스티븐스에게 쓴 편지에 자신의 심경을 보여줬다. 14살 알렉스는 야심에 차서 천성은 아니지만, 기꺼이 목숨을 걸고 명성을 떨치고 싶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어쩌면 군이 그가 간절히 원했던 명예와 인정을 가져다줄지도 몰랐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알렉스 해밀턴으로부터.” 그는 편지를 마무리했다.

세인트 크로이 섬을 떠나야겠다는 열망 아래에서 그는 자신만의 승리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을 받고 스스로를 뛰어넘고자 하는 강한 투지였다. 알렉스의 총명함과 결단력을 알아본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장로교회의 목사인 휴 녹스는 세인트 크로이 섬에 도착한 직후, 알렉스를 만났다. 바로 녹스는 알렉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야망과 포부가 아주 뛰어난 청년이라고 묘사했



다.

휴 녹스는 자신의 서재를 알렉스에게 열어줬고 시를 쓰라고 격려했으며, 탄탄한 고전 교육을 시켜줬다. 아론 버 시니어 목사가 녹스의 대학 시절 교수였고, 그를 목사의 길로 인도해줬기 때문에, 알렉스는 틀림없이 휴 녹스로부터 처음 “아론 버” 라는 이름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1772년 세인트 크로이 섬을 핏물 같은 허리케인이 알렉스의 탈출 수단이 되었다. 그는 허리케인의 참상을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극적으로 묘사했다. 카리브 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와는 6년간 만나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연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엄청난 공포와 파괴...바다와 바람의 포효, 불타는 듯이 날아다니는 유성들, 끝이 나지 않는 번개... 무너지는 주택의 굉음...고막이 터질 듯 하는 절망의 비명소리.” 그가 이 편지를 녹스 목사에게 보여주자, 녹스는 이미 알렉스의 시를 실은 적이 있었던 세인트 크로이 섬 신문사에 보내라고 설득했다. 이 익명의 편지는 호평을 받았다. 세인트 크로이 섬의 지사까지 이 글의 작가를 알고자 했다.

휴 녹스는 이 찬사를 이용해서 알렉스를 대학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보내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대학! 어쩌면 결국 대학이 기회였다. 니콜라스 크루거가 이 계획에 승선했고, 알렉스의 보호자인 토마스 스티븐스와 세인트 크로이 섬의 사업가들 그리고 부유한 뉴욕과 뉴저지 출신의 사람들도 도왔다.

그 가을, 행복한 17살 알렉산더 해밀턴은 보스턴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그는 세인트 크로이 섬을 떠나는 일에 일말의 후회도 없었고, 세인트 크로이 섬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다신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해 중 그가 탄 배에 화재가 났다. 미국으로 가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착을 못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알렉스는 건디지 못할 게 분명했다. 그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불을 끄기 위해 끊임없이 물 양동이를 날랐다. 드디어 불이 꺼지자, 배가 느릿느릿 보스턴 항에 도착했다. 세인트 크로이 섬을 떠난 지 3주가 지나서였다.

알렉스에 대한 추천서가 저명한 뉴욕과 뉴저지 사업가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그는 보스턴을 떠나 뉴욕으로 향했다. 또한 뉴욕 킹스 컬리지에 다니는 친구 네



드 스티븐스가 매우 보고 싶었다. 알렉스가 급히 뉴욕으로 향하는데 또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장학금이 뉴욕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다.

추천서로 무장한 18세의 알렉스는 뉴저지 엘리자베스타운에 있는 휴 녹스의 모교 바버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이것으로 알렉산더 해밀턴과 아론 버의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연결고리가 생긴다. 티모시 삼촌과 엘리자베스타운에서 지내면서 아론 버 역시 대학 준비를 위해 바버 아카데미에 다녔다.

알렉스가 엘리자베스타운에 도착했을 때, 1년 먼저 뉴저지 대학을 졸업한 17살 버는 엘리자베스타운에서 친구 맷 오든을 방문 중이었다.

400가구의 작은 마을에서 알렉스와 아론은 마을 포구에서 배를 타면서 혹은 아서 길에서 낚시를 하면서 서로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둘이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는 아론 가족과의 인연으로 항상 문을 열어뒀던 엘리자베스타운 저명인사들의 응접실이었다. 그 문들은 알렉스의 추천서로 인해 그에게도 열렸다. 잘생기고 재치 있게 말을 잘하는 알렉스는 어렵지 않게 적응했다. 더 좋았던 것은, 아무도 그의 배경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알렉스는 오래지 않아 이 매력적인 미국 귀족들의 모임이 자신이 속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다.

아론 버는 뉴저지 대학의 필수 과목을 따라 잡기 위해 바버 아카데미에 들어갔다. 6년 뒤에, 알렉스가 같은 이유로 그리스어, 라틴어, 프랑스어, 역사, 지리, 수학을 따라 잡기 위해 바버 아카데미에 들어갔고 그 역시 뉴저지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11살에 처음 대학 지원을 했던 아론 버와 마찬가지로, 알렉스도 입학을 거부당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14살, 15살에 대학에 들어갔다. 이미 18살이었던 알렉스는 자신만의 속도로 공부해서 가능한 한 빨리 졸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절대 안 된다고 면접관들은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4년의 대학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그렇다면 좋다, 알렉스는 결정했다. 그들이 그를 원하지 않는 이상, 그 역시 그들을 원치 않았다.

알렉스는 실패에 익숙하지 않았고, 뉴저지 대학은 그의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였다. 직접 준비한 성공의 길을 따라가는데 포부를 갖고 집중하고 있던 알렉스는 잠시 멈춰야만 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는 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넘어야만 했다.

## 제3장

### 애국자가 되어: 1773-1776



해밀턴

알렉산더 해밀턴은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뉴저지 대학이 그의 속도에 맞게 수업을 듣는 걸 허락하지 않자, 그는 친구 네드 스티븐스가 있는 킹스 컬리지로 갔다.

알렉스는 1773년 가을, 후에 콜럼비아 대학이 되는 뉴욕의 킹스 컬리지에 입학했다. 18살 때, 알렉스는 다 자라서 약 174센티미터가 되었다. 그는 마르고 하얀 피부, 적갈색의 머리카락과 강렬한 푸른 눈을 가진 에너지 넘치고, 자신감 있는 청년이었다.

해밀턴은 뉴욕이 약 25,000명의 사람들이 섞여 살며, 길거리에서 15개 이상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북적거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라고 생각했다. 킹스 컬리지는 뉴저지 대학과 같은 교육 과정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2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규모가 작은 학교였다. 대학 전체가 3층짜리 건물에 있었다.

알렉스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을 마음에 들어 했다. 킹스 컬리지에서는 그만의

계획표를 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빨리 배우는 사람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손에 잡히는 모든 책을 읽었으며, 그가 읽은 모든 내용을 기억했다. 아론 버가 그랬듯, 알렉스도 그리스와 라틴어를 완벽하게 습득했다.

또한 아론 버와 마찬가지로, 알렉스는 쉽게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룸메이트였던 로버트 트로프와는 바로 친해졌다. 그 역시 고아였다. 알렉스가 리더였던 반면, 로버트는 추종자 경향이 있었다. 몇 년 뒤에, 로버트는 또 다른 자신감 있는 청년인 아론 버와도 친구가 되었는데, 그는 로버트를 “똥똥한 친구”라고 부르며 놀렸다.

알렉스가 가까스로 킹스 컬리지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했을 때, 12월 16일 인디언 복장을 한 보스턴 군중이 300통이 넘는 영국차를 보스턴 항구에 버리면서, 식민지에 반입하는 영국 차에 세금을 물리는 대영제국에 항의했다. 세인트 크로이 섬을 떠난 지 1년 밖에 안됐지만, 알렉스는 이미 미국을 “나의 조국”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의에 마음이 끌린 알렉스는 익명으로 기고한 뉴욕신문 사설에서 보스턴 티 파티라고 불리는 사건을 즉시 옹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8살 알렉스는 무장을 한 자유의 아들이라는 시위대 앞 연단에 올랐다. 그 자리에서 그는 높은 세금으로 보스턴 사람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영국을 규탄하는 즉흥 연설을 했다. 그는 만약 그 누구도 영국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기만, 권력 그리고 끔찍한 탄압이 권리, 정의, 사회 통합과 자유에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보다 더 어려 보였던 알렉스는 뛰어난 웅변으로 시위 연설자로서 바로 명성을 얻었다.

알렉스는 논전을 잘했다. 그 다음 2년 동안, 그는 친영국주의 성직자인 사무엘 시버리와 뉴욕 신문 지면에 사설과 서한을 통해 계속 논쟁을 펼쳤다. 알렉스는 대영제국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대격전 보다는 소규모의 접전이 있을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는 또한 정확하게 프랑스와 스페인이 미국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미국의 경제력이 대영제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명 없는 이 훌륭한 사설의 독자들은 기고자가 겨우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1775년 4월 18일, 마이뉴트맨이라고 불리는 매사추세츠 농부들이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에서 8,000명의 영국 군대를 이기면서 미국인들의 시위는 절정에 올

랐다. 그 소식으로 뉴욕 시와 미국 전체가 떠들썩해졌다.

그 승리에 힘입어, 알렉스와 로버트 트로프는 오크의 심장이라 알려진 새로 결성된 민병대에 합류했다. 로버트는 알렉스가 매일 충실하게 훈련 받았고, “하루도 빠지지 않으며 실력 향상에 의욕적”이라고 했다. 동시에, 알렉스는 학교 과제도 열심히 했고, 신문에 계속 기고했으며, 전략과 군 전술에 대해 공부했다.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 3주 후에, 시위대는 대영제국의 노골적인 지지자인 킹스 컬리지 총장 마일스 쿠퍼의 온 몸에 타르를 칠하고 그 위에 깃털을 썩어 벌하기 위해 학교로 급습했다. 알렉스가 그 모의를 듣고 총장실로 달려갔다. 알렉스는 앞에 서서 총장을 벌하는 것은 “자유라는 영광스런 대의에 손상을 주고 수치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알렉스의 애국심을 잘 알고 있었던 시위자들은 뒤로 물러났다.

알렉스는 엄청난 용기를 보여줬다. 군중들이 그를 반대할 수도 있었다. 혹은 헌신적인 애국주의자란 명성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알렉스는 시위대의 규칙을 반대했고 그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기꺼이 싸우고자 했으며, 게다가 그는 법과 질서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와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그 해 8월, 영국의 전함 아시아가 뉴욕 항에 도착했다. 다시 한 번 알렉스는 싸움에 뛰어들었다. 맨하튼의 끝을 보호하는 24개의 기관포를 지키기 위해, 알렉스와 15명의 킹스 컬리지 학생들이 무거운 기관포를 맞출로 끌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시아 전함은 맹렬한 포격을 퍼부었다. 공포에 휩싸인 뉴욕 사람들은 알렉스와 같은 학생들이 반격하는 동안 집에서 뛰쳐나왔다. 끝없는 영국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알렉스와 학생들은 모든 기관포를 지켜냈다.

1775년 8월 같은 날, 영국의 조지3세는 미국의 저항을 진압해야만 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전쟁은 알렉스에게도 왔다. 그는 2년 6개월의 대학 생활을 끝냈다. 그는 라틴어나 그리스어와 같은 말이 아닌 행동을 하고자 했다. 그는 군에 입대한다.

1776년 3월, 21살 알렉스 해밀턴은 뉴욕시 포병대의 대위로 임관되었다. 68명의 부하들 중 몇몇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고, 아무도 병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해밀턴 대위는 그 사실을 견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을 위해 군복과

장비를 구입했고 심지어 세인트 크로이 섬의 기금을 그들에게 빌려줬다. “단정한 복장은 필수다.” 그는 말했다. “그러지 못하면, 병사는 놀림감이 되거나 굴욕을 맛보게 된다.”

해밀턴은 쉽 없이 그의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는 엄한 지도자였지만 공명정대했기 때문에, 부하들은 그를 존경했고 좋아했다. 완벽주의자였던 해밀턴은 곧 그의 부대를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었다. “전 군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훈련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 로버트 트로프는 단언했다.

그 해 4월, 조지 워싱턴이 뉴욕에 와서 다음 영국 공격에 대비했다. 300척의 영국 군함들이 32,000명에 영국 군사들을 싣고 뉴욕시 바로 남쪽에 정박했다. 반면에 워싱턴장군에겐 약 20,000명의 미숙한 병사들뿐이었고, 해군도 없었다.

시민들의 5분의 1이 도망가면서 뉴욕 시 자체가 유명 도시로 되었다. 집집마다 환자가 대어졌고, 총알을 만들기 위해 지붕에 있던 납들은 다 제거되었으며, 나무는 빨감용으로 베어졌다.

명령에 따라 해밀턴 대위는 병사들에게 베이야드 힐 리다우트라고 불리는 맨하튼 남쪽 끝에 작은 임시 전초 기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1776년 7월 2일, 해밀턴과 병사들은 삼립한 돛대에 영국 국기를 나부끼며 영국 함대가 뉴욕 어퍼베일로 다가오는 모습을 건물옥상에서 경악해하며 발견한다. 지체 없이 붉은 영국 군복을 입은 수천 명의 군사들이 스탠튼 섬 가까이에 상륙했다.

바로 이틀 뒤, 13개의 식민지 앞에 패배가 드리웠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두 번째 대륙 회의에서 독립선언을 채택하기로 결정이 난다. 대영제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은 것이다. 주사위가 던져졌다.

21살 알렉산더 해밀턴 대위는 기다리기보다는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지만, 영국군이 공격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도 그러했다.



## 버

1773년 말, 17살 아론 버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확실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의사도 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건 법 뿐이었다. 다음 단계를 정하지 못하고, 아론은 쉐리 누나의 남편 태핑 리브, 피어폰트 에드워드 외삼촌과 함께 법 공부를 해야 하나며 티모시 삼촌에게 편지를 썼다. “네가 즐거워할 것을 해라.” 티모시 삼촌은 답장했다.

그러나 아론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코네티컷 리치필드에 있는 누나에게 가기 전, 5월까지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법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후에도 마음을 잡지 못했다. 친구 맷 오든에게 쓴 편지에는 공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리치필드 여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맷은 “너의 사랑 이야기 재미있게 읽고 있다” 며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18살 때, 아론은 이미 만인의 연인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뉴잉글랜드 식민지와 대영제국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조차도, 그는 리치필드 여인들을 구애하며 어울렸고, 그들은 잘생긴 어린 청년 아론 버를 절대 잊지 못했다.

아론은 알렉산더 해밀턴처럼, 점점 시위 명분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는 군 역사와 전투 기술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1774년, 아론은 “수천 명의 군중들이 시민의 자유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아론은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에 관해 듣고, 알렉스 해밀턴이 한 것처럼, 즉각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알렉산더 해밀턴이 예비군으로 민병대에 들어간 반면, 아론은 맏에게 두 사람 다 매사추세츠 케임브릿지에서 소집되고 있는 새로운 대륙군의 정규군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편지를 쓴다.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맏은 대답했다. 그는 너무 바빴다.

하지만 6월, 보스턴 만 넘어 브레드 힐에서의 혈투 소식으로 아론의 열의는 불타올랐고, 뉴저지로 가서 맏을 움직이게 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군 입대를 위해 대학을 중퇴했다. 아론 버 역시 뒤도 한 번 안 돌아보고 법 공부를 그만두고 나왔다.

아론은 의원들의 군 입대 추천서를 가지고 맏과 함께 곧 케임브릿지로 떠났다. 추천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아론 버는 훌륭한 청년이자, 우리의 오랜 소중한 친구 버 총장의 외아들입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친다는 우리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맏은 케임브릿지에 도착하고, 대륙군의 새로운 사령관 조지 워싱턴이 혼란을 수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약 16,000명의 지원자가 입대했지만, 그들 대부분 자립심이 강한 뉴잉글랜드의 농부들로 군대 규칙에 적응하지 못했다. 더러운 텐트와 막사가 사망에 흠어져 있었다. 대포와 탄약의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영국군과의 대결은 재앙이 될지도 몰랐다.

넌더리가 난 아론은 고열로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그는 대륙군이 캐나다를 장악하고 있는 영국군을 공격할 것이라는 계획을 듣고, 빠르게 회복했다. 리처드 몽고메리 장군은 몬트리올을, 베네딕트 아놀드 대령은 퀘백을 차지하라고 명령 받았다.

훨씬 나은 상황이었다.

아론은 당장 지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리 지원한 맏 오든이 그를 말렸다. 캐나다로 가는 563킬로미터 행군은 관통할 수 없는 황무지를 지나야하는 일이었다. 학창시절 아론 버는 173센티미터도 안 되는 꼬마였다. 그는 검은 머리카락,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의 눈을 가진 여전히 마르고 약한 청년이었다.

아론을 말리지 못하고, 9월 13일, 이 두 명의 지원병-사관후보생 버와 오든-은 베네딕트 아놀드 대령의 지휘 아래 퀘백으로 행군을 시작했다.



누나 샬리에게 보낸 편지에 아론은, “행군 준비물”을 “군화 한 켤레...양모 바지...짧은 더블 버튼 재킷, 짧은 코트...담요...챙이 올라간 작은 둥근 모자...도끼, 총, 총검 등등”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동에 옮길 준비가 되었다.

캐나다로 가는 6주간의 행군 동안, 베네딕트 아놀드 대령은 훈련에 신경 쓰지 않았다. 훈련은 각자 알아서 했다. 누구는 산을 탔고, 또 다른 누구는 케네벡 강에서 부토라 불리는 물통모양의 배를 저었다. 병사들은 언 개울을 넘고, 늪을 통과하고, 설산을 오르고, 울창한 숲을 잘라야만 했다. 아론의 배가 7미터 폭포로 거꾸러지면서 한 명이 익사하고, 아론과 다른 병사들은 겨우 해안가에 도착했다. 굶주린 이들은 개를 잡아먹었다. 3명의 병사들이 복귀했다.

아론 버는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명랑하고, 건강한 상태였다. 숙련된 조타수였던 그는 낚시를 하면서 거친 바다에서 무거운 배를 조종했다. 그는 뉴저지 습지에서 사냥 여행을 해서 끔찍한 조건에 익숙했다. 그리고 음식이 거의 없었지만, 대학시절에 받은 단식 훈련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행군을 시작한 11,000명의 병사들 중 오직 750명만이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건너 캐나다 퀘벡 남쪽에 도착했다. 북아메리카의 절벽과 강인한 숲이 보호하는 퀘벡에 800명이 배치됐다.

미국의 군사적 포위가 시작됐다.

아론이 황무지에서 보인 뛰어난 인내심에 감명 받은 아놀드 대령은 그에게 상류를 지나 몬트리올로 가서 리처드 몽고메리 장군과 함께 퀘벡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계획은 몬트리올을 차지한 몽고메리 부대가 아놀드 부대에게 무기와 의복 그리고 약 300명의 병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몽고메리에게 보낸 편지에 아놀드는 아론을 칭찬하며 “그는 활기차고 활동적인 신사로 고된 행군에서 훌륭한 정신력과 결단력을 갖고 행동했다.” 고 썼다.

몽고메리 장군 역시 아론을 높게 평가했다. 이 고등 교육을 받은 사관후보생은 몽고메리가 갖고 있는 신사적인 군인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했다. 퀘벡에 도착하자, 몽고메리는 아론을 부관으로 임명해서 대위로 진급 시켰다.

1775년 12월 31일,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미국 군대는 퀘벡을 공격하기 위해 두 개의 전선으로 나누었다. 버 대위와 다른 장교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몽고메리 장군은 그의 사단과 최전선으로 향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앞에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다. 미국 군대가 다가가자, 안에 있던 머스킷 총병들이 공격을 시작했고, 포병들은 대포에 불을 붙였다.

포도탄의 집중 투하로 몽고메리 장군은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두 명의 부관을 잃는다. 버는 쓰러져 있는 부상당한 장군을 붙들었다. 최전선에서 오직 버와 프랑스인 안내자만이 살아남았다. 버 대위는 남은 병사들과 진군했지만, 상관이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버는 거부했다. 몽고메리 장군은 제대로 된 군대 장례식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 버는 장군을 좁은 어깨에 둘러맸지만, 깊이 쌓인 눈을 헤칠 충분한 힘이 없었다. 그는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시신을 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다른 공격을 지휘했던 아놀드 장군 역시 격퇴되었다. 몽고메리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총상을 입었지만, 다리 부상이었고 치명적이지 않았다.

남은 겨울 동안 버와 500명이 넘는 병사들은 눈과 얼음의 요새에서 진을 치고 퀘백을 포위하는 동시에 천연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버는 장군이 된 베네딕트 아놀드 밑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아놀드가 비열하고 그의 병사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는 사람이라서 매우 싫어했다.

버는 샬리에게 아놀드는 “더럽고, 불쾌하고, 돈도 없고 불친절하다”고 편지에 썼다. 버는 고독한 사람이 아니었다. 친구들을 비롯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퀘백 전투에서 보여준 그의 영웅적 행동을 “용감하고…명예롭고…영광스럽고… 두려움을 모르고…용맹하다”는 칭찬과 함께 축하했다.

겨울이 가기 전, 맷 오든은 뉴저지 제1대대에 입대하기 위해 고향으로 떠났다. 아론은 섭섭했지만, 맷은 여전히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내 마음, 내 인생, 내 운이 너를 도울 수 있다면, 이것들은 다 네 것이야.” 그는 맷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맷은 아론을 저버리지 않았다. 완전히 반대였다. 맷은 버 대위의 영웅담으로 가득한 필라델피아의 수도에 들려, 친구를 위한 새롭고, 권위 있는 임무를 준비했다.

버는 캐나다를 떠나 뉴욕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그 때 처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다. 그는 5월에 누나에게 편지를 써서 “공적인 일”로 남쪽으로 향한다고 알렸다. 새로 소령으로 진급한 20살 버는 뉴욕 알바니에 도착

해서야, 영광스럽게도 조지 워싱턴의 전속 부관으로 임명 받았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1776년 6월, 버 소령은 조지 워싱턴에게 뉴욕에 있는 그의 본부, 리치몬드 힐이라 불리는 멋진 저택에서 임명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버에게 싫은 티를 냈고, “가족”이라 여기는 전속부관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걸출한 버-에드워드 집안 출신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버의 거만스런 태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버가 너무 쉽게 원치 않은 조연을 해서였을까? 어쨌면 “가족”으로부터 영원한 충성을 기대한 워싱턴이 버가 본부를 지루해할 거란 걸 알았을 수도 있었다.

버는 실제로 지루해 했다. 퀘백에서의 일로 그는 여전히 칭찬에 취해 있었고, 책상에서 서류를 작성하기 보다는 나가서 움직이고 싶어 했다. 그는 사무원이 아니었다!

버는 가족의 오랜 친구인 존 헨콕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일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다시 군으로 배정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했다. 헨콕은 만류했다. 만약 버만 원한다면, 뉴욕에 있는 워싱턴의 부사령관 이스라엘 푸트남의 전속 부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했다.

버는 당연히 그 자리를 원했다. 워싱턴의 부관으로 10일을 채운 후, 그는 리치몬드 힐을 떠나 푸트남 장군 밑으로 갔다.

푸트남 장군의 부관으로서, 버는 뉴욕 본부의 역할을 하는 큰 벽돌집에서 푸트남의 가족들과 살았다. 올드 풋이란 별명을 가진, 58살 이스라엘 푸트남은 솔직하고, 마음이 따뜻하며, 전투 경험이 풍부한 뉴잉글랜드 사람이었다. 아론 버 소령은 바로 그가 좋아졌고, 오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를 “나의 장군님”이라고 불렀다.

지금 이 훨씬 나은 상황이었다.

## 제4장

### 영웅이 되어: 1776-1781



#### 버

아론 버 소령은 이스라엘 푸트남 장군 본부에서 생활하며 지루할 수가 없었다. 그가 1776년 7월에 복무를 신고한 직후, 영국 장교의 딸인 아름다운 마가렛 몬크리프가 그곳에 왔다. 마가렛은 전쟁포로로 구속됐었지만, 석방 후 푸트남 가족들과 사는 것으로 정해졌다. 스무 살의 늙은 아론 소령은 마가렛을 정신없이 사랑에 빠져들게 하였다.

마가렛은 본부 지붕에서 뉴욕 전경을 그리는 걸 즐겼다. 버가 마가렛이 그림에 미국의 요새들을 그려 넣는 걸 보게 되었던 날, 그녀의 그림을 보고 감탄을 했다고 한다. 영국 스파이! 그것으로 로맨스는 끝이 났다. 그리고 그녀의 방문도 끝이 났다. 그녀는 바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졌다. 그러나 그녀는 “영혼의 정복자” 라고 생각한 젊은 미국 장교를 너무나 그리워했다.

버도 마가렛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르지만, 전쟁은 진행 중이었고, 그는 그 전쟁에 참전 중이었다. 그 해 8월, 푸트남 장군은 미국 군사 방어를 확인하고 보고받기 위해 버를 롱 아일랜드로 보냈다. 버의 보고 결과는 좋지 않았다. 영국군이

“미국을 꿈쩍 못하게 둘러싸서 모든 통신을 끊고 즐거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었다.

버가 정곡을 찔렀다.

8월 27일, 푸트남 장군의 9,000명 병사들은 약 20,000명의 영국군들과 헤센  
병정들을 상대로 롱아일랜드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하루 동안의 전쟁에서 수적으  
로나 화력으로나 열세였던 푸트남 장군의 병사들은 급히 후퇴했다. 워싱턴 장군  
의 노력 덕분에, 생존 병사들은 때마침 불어준 짙은 안개를 틈타 이스트 강을 건  
너 맨하튼으로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다.

3주 후, 13,000명의 영국 군대가 맨하튼 이스트사이드에 도착했다. 할렘 하이  
츠 황야에 숨어 있던 군사들과 함께, 푸트남 장군은 그의 충직한 부하 버 소령과  
4,000명의 병사들만으로 영국군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오래 버티  
지 못했다. 또 한 번 황급하게 퇴각하면서 푸트남 장군은 병사들에게 할렘 하이  
츠를 향해 이스트사이드로 갈 것을 명령했다. 버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며, 이스트사이드로 가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영국군으로 병사들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푸트남 장군이 어떤 부하의 판단을 믿는다면, 그 부하는 버 소령이었다.  
푸트남 장군은 자신의 명령을 취소했고 두 배 빠르게 웨스트사이드로 행군하라  
고 했다. 영국군으로부터 산발적인 총격을 받았지만, 병사들은 할렘 하이츠에 있  
는 다른 부대에 안전하게 합류했다.

오직 골드 실리만 장군의 여단만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주둔하고 있는 베이야  
드 힐 리다우트에서 여전히 위기에 처해있었다. 푸트남 장군은 버에게 내려가서  
여단을 할렘 하이츠로 호위해 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버가 도착했을 때, 실리  
만 장군은 이동하려고 하지 않았다. 버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다 돌아와선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진지를 포기하라. 지금 당장!> 실리먼은 그 속임수  
에 넘어갔고 버는 여단을 안전한 할렘 하이츠로 이끌었다.

버가 알렉산더 해밀턴을 포로가 되거나 죽을 뻔 한 위기로부터 구해주었다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는 심중괄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버는 항상 칭찬과 인정에 배고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워싱턴 장군이 그가 목  
숨을 무릅쓰고 전 여단을 구한 공로를 치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를 냈다. 단

한 번도 워싱턴을 좋아하지 않았던 버는 최고 사령관이 그의 영웅적 행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푸트남 밑에서 1년을 복무한 후, 버는 중령으로 진급했다. 버는 예전에 맷 오든에게 보낸 편지에 “진급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아.” 라고 썼었다. 그러나 그는 워싱턴이 또 다시 자신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빴다. 버 소령은 더 신참의 젊은 장교들이 진급한 후에 “나중에야 제 진급 결정이 내려진 것” 이냐고 최고 사령관에게 싸늘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워싱턴은 중령의 무례한 편지에 답신하지 않았다.

7월, 21살 버는 말콤가라고 불리는 윌리엄 말콤 대령의 연대로 배정 받았다. 느긋한 성격의 말콤 대령은 군 문제에 관해 능력도 흥미도 없어서 그의 연대를 버에게 넘겼다. 말콤의 병사들은 상태가 좋지 않았다. 완벽주의자 버는 또 다른 완벽주의자 알렉산더 해밀턴이 그의 중대원들을 발전시킨 것처럼, 그의 연대 병사들을 개선시켰다. 심하게 훈련은 시키면서도 버는 자신의 돈으로 추가 수당을 주었다. 버 소령은 10대처럼 보였지만, 말콤 병사들에게 존경과 충성을 받게 되었다. 한 말콤 연대의 장교는 후에 자신의 연대가 “전 군대에서 훈련과 명령에 있어 모범적” 이라고 보고 했다.

말콤 연대의 임무는 뉴욕과 뉴저지의 라마포 산맥을 따라 주둔한 영국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1777년 9월, 대규모의 영국군에게 위협을 받자, 버는 그의 병사들을 이끌고 영국군의 전초기지를 공격했다. 싸우기 위해 모인 병사들과 농부들에 놀란 영국군들은 후퇴했다. 지역 사람들은 버를 영웅이라고 했지만, 보통 때처럼 워싱턴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저지에 주둔하는 동안, 버는 아름답고 지적인 시오도시아 프리보스트라는 여인을 만난다. 그녀는 유서 깊은 미국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카리브 해에서 복무하는 영국 장교와 결혼한 상태였다. 버는 바로 프리보스트 부인에게 매료당했고, 그녀 역시 그에게 끌렸다.

1777년 늦가을, 버는 말콤 연대 병사들과 펜실베니아 포지 벨리로 행군했고, 워싱턴의 본대와 겨울을 보냈다. 훌륭한 군사 훈련으로 명성을 얻은 버는 포지 벨리 동쪽의 걸프 패스를 지키고 있는 난폭한 민병대를 맡게 되었다. 즉시 그는 반복 연습, 엄격한 훈련 그리고 놀라운 야간 조사를 하며 엄격히 그들을 다뤘다.

하지만 민병대는 충성스런 말콤 병사들이 아니었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애송이처럼 보이는 버 대령을 싫어했다. 병사들이 그를 죽일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버는 그 소문을 듣고, 야간 행군을 요청했다. 하지만 모든 총기에서 실탄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후였다.

병사들의 대열을 지나다니다가 버는 주모자와 마주했다. “바로 지금이다, 제군들!” 주모자가 소리치며 탄약 없는 방아쇠를 당겼다. 동시에, 버는 검을 들고 그 남자의 팔을 거의 절단했다. 반란은 즉시 끝이 났다.

포지 벨리에서 춥고 배고픈 겨울을 보낸 후, 버는 잘 훈련된 말콤 병사들과 행복하게 재회했다. 1778년 6월, 그와 말콤 병사들은 영국을 맹렬히 추격하는 워싱턴 부대에 합류했다. 37도가 훌쩍 넘는 더위에서, 두 부대는 뉴저지 몬머스 법원에서 마주했다. 전투 중에 버와 병사들은 영국군 일당을 뒤쫓았다. 영국군을 막 공격하려고 할 때, 워싱턴이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버와 말콤 병사들을 위협하게 하는 것이었다. 버의 말은 총에 맞아 넘어져 있었고, 그의 부관은 죽었다. 죽음과 혹독한 더위에서 병사들과 견디는 동안, 그는 끔찍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 받았다. 아픈 거와 관계없이, 버는 이길 수 있는 전투를 무승부로 만든 워싱턴에게 분노했다.

몬머스 전투 후에도 버 중령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다. 가을, 그는 워싱턴에게 “건강상의 문제로 몇 달간의 휴직”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버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매혹적인 프리보스트 부인과 함께 몇 달을 보낸다.

버가 복귀하자, 워싱턴은 그를 뉴욕 주 웨체스터 라인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전투에서 제외시켰다. 병사들이 “할머니 초소”라고 부르는 곳에서, 그는 절도와 약탈로부터 영국군과 미국군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버는 “할머니스런” 임무조차도 잘 할 수 없었다. 쇠약해진 그는 군을 떠난다. “제 건강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79년 3월에 워싱턴에게 편지를 썼다. 버의 훌륭한 군복무기록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 버릇없는 젊은 장교의 최후에 어떤 아쉬움도 보이지 않았다.

은퇴를 하든 안하든, 버에겐 한 가지 명령이 남아있었다. 영국 군대가 뉴 헤이븐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을 때, 그는 마침 코네티컷 뉴 헤이븐에 있

었다. 버는 지역 민병대와 예일 대학생들의 전열을 빨리 정비해서, 오합지졸의 병사들을 데리고,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뉴 헤이븐에서 탈출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영국군을 방어했다. 다시 한 번 지역 사람들에게 그는 영웅이 되었다.

버는 자주 프리보스트 부인을 방문했지만, 그 다음 해에는 몸을 회복하는데 열중했다. 즐겁지 않은 시절이었다. 그는 결혼한 여인을 사랑했고, 건강은 나빴으며, 그의 법 공부는 제자리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버는 뉴욕 시 군 복무 중에 만난 “특별한 친구” 로버트 트로프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1780년 봄, 버는 트로프에게 법률 시험을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했다.

트로프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내 행복과 법학에서의 발전을 너와 함께 공부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그 다음 해 동안, 버와 알렉산더 해밀턴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트로프는 함께 법을 공부했고, 버는 때때로 하루에 16시간을 책에 파묻혀서 뉴저지 대학 때 처럼 지냈다.

프리보스트 대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버는 25살이었고,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이었다. 시오도시아 프리보스트는 5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보다 5살 연상이었다. 그녀는 암에 걸렸다고 스스로 “좋지 않은 건강”이라 말했지만,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녀가 가장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며 그는 “그녀는 원숙한 지성과 가장 매력적이고 우아한 매너를 가진 여성”이라고 말했다.

아론 버와 시오도시아 프리보스트는 결국 결혼한다.





## 해밀턴

아론 버가 영국군이 맨하튼을 침략했을 때, 베이야드 힐 전초기지에서 알렉산더 해밀턴 대위를 구출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다면, 해밀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해밀턴은 후위 전투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도시에 남았던 마지막 군사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워싱턴 최고 사령관은 할렘 하이즈에 있을 때 처음 해밀턴을 주목했다. 해밀턴 아들의 글에 “워싱턴이 아버지를 텐트로 초대했고, 아버지의 군사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쓰여 있다.

아론 버가 1776년 가을 푸트남 장군의 보좌관으로 복무하고 있을 때, 해밀턴은 워싱턴과 30,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뉴저지에서 영국군에게 참혹하게 패배한 후, 뉴저지를 넘어 퇴각하고 있었다. 뉴 브론스윅에서, 해밀턴의 포병 중대는 후미를 맡았고,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영국군의 기관포를 막아내서 미국 군인들이 안전하게 뉴저지에서 델러웨어 강을 지나 펜실베이니아로 갈 수 있게 했다.

1776년 12월, 해밀턴과 그의 포병 중대는 다시 워싱턴과 함께 델러웨어 강을 넘었다. 이번에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뉴저지로 향했다. 뉴저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트렌톤으로 행군했고 크리스마스 밤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는 승리였다.

9일 후에, 미 병사들은 워싱턴과 그의 부대가 영국군들에게 또 다른 성공적인 기습공격을 해내자 다시 흥분했다. 뉴저지 프린스턴에서의 공격이었다. 해밀턴은 자신을 거부했던 대학에 포격을 퍼부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는 한 번도



이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22살 해밀턴 대위는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잘 훈련된 포병 중대 역시 관심을 끌었다. “그들의 대장은 어린애였다… 해밀턴에 대해선 익히 듣고 있었다.” 한 장교가 말했다.

워싱턴의 눈도 해밀턴에게 가 있었다. 그는 해밀턴을 대령으로 진급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고 여기는 전속부관으로 임명했다. 해밀턴은 매우 기뻐했지만, 버처럼 그도 사무실이 아닌 전쟁터에 있고 싶었다. 버가 워싱턴의 전속부관으로 10일간 있었던 반면, 해밀턴은 4년간 복무했다.

오래지 않아 해밀턴은 워싱턴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우리 군의 서명은 해밀턴에 달려있다”고 로버트 트로프는 말했다. 곧 워싱턴은 해밀턴을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해밀턴의 대답은 항상 “각하”였다. 그리고 워싱턴의 부관 “가족”들도 해밀턴을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한 부관은 해밀턴이 “정직하고, 친절하고, 똑똑하고, 용감하다”고 말했다. 해밀턴이 냉철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관은 그를 “작은 사자”라고 불렀다.

버와 말콤 병사들이 1777년 뉴저지에서 정찰하는 동안에, 해밀턴은 워싱턴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에서 영국군과 전투를 벌였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미국군이 브래디와인 전투에서 패하자, 워싱턴은 해밀턴에게 스쿠거 강을 따라 제분소를 태워 영국군을 막을 것을 명령했다.

해밀턴과 세 명의 병사가 제분소에 불을 붙이는데, 영국 기마병들이 돌격했다. 4명의 미 병사들은 배에 올라타서 도망쳤다. 빗발 같은 총격으로 한명이 죽자, 해밀턴과 동료들은 강물에 뛰어들어, 강가로 수영한 다음, 본부로 걸어 돌아왔다. 그들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이 전사했다고 보고가 끝난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은 흠뻑 젖어 있었지만 살아 돌아와 여기에 있었다.

1주일 후, 영국군은 필라델피아의 수도를 차지했다.

1777년 10월, 미국군이 뉴욕 사라토가에서 나름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함대와 부대를 미국으로 보내도록 프랑스를 설득시켰다. 프랑스어에 유창한 해밀턴이 모든 워싱턴 장군의 프랑스와의 서한을 번역해주고 읽어주고 써줬다.

포지 벨리에서 병사들이 겨울 야영을 시작했을 때, 해밀턴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는 고열과 류마티즘으로 매우 몸이 나빠져서 거의 생사를 오가고 있었

다. 해밀턴은 버 중령이 의심할 여지없이 있는 걸프 패스를 지나 포지 벨리에 도착하는데 두 달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 다음 봄, 영국군이 필라델피아를 포기하고 뉴저지를 건너 도망갔고 워싱턴의 부대가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았다. 처음으로 해밀턴과 버가 같은 전투, 몬머스 전투에서 싸웠다. 해밀턴은 한 장교가 “광분한 용맹”이라 일컬은 최전방을 담당했다. 하지만 해밀턴의 말은 총에 맞아 쓰러졌고 마찬가지로 버의 말도 같은 전투에서 죽었다.

전쟁의 열기가 남부에서는 커지고, 북부에서는 수그러들면서, 해밀턴은 1년 반 동안 여기저기서 워싱턴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긴급 공문과 명령을 전했고, 영국군의 상태를 계속 파악했으며, 그리고 부대와 보급품 수송을 정리했다. 자기 발의로 의회에 편지를 써서 국가의 끔찍한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1779년 12월, 해밀턴은 워싱턴과 함께 뉴저지 모리스 타운에 겨울 동안 머물렀다. 겨울 본부에서 가장 즐거웠던 것은 춤과 차 그리고 지역의 젊은 여인들과의 썰매 파티였다. 해밀턴과 버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여성들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숙녀들은 이 두 명의 매력적인 젊은 장교들을 거부하지 못했다.

그 겨울, 엘리자베스 스카일러가 모리스타운에 왔다. 해밀턴은 에너지 넘치면서 진지한, 검은 눈의 엘리자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다. 그는 자신의 젊음을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사용했지만, 엘리자와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바람둥이 시절을 끝냈다. 그는 친구에게 엘리자가 “당당한...최고의 미인이며 살짝 짓궂은 매력이 있는 사람” 이라고 말했다.

엘리자와 떨어져 지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뉴욕 주 웨스트포인트에 임무가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방어 기지의 사령관 베네딕트 아놀드 장군을 만난다.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아놀드의 집에서 워싱턴이 합류하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영국 스파이가 막 잡혔다는 소식이었다. 듣자마자, 아놀드는 방을 급히 나가서, 워싱턴이 도착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해밀턴과 다른 장교는 수사를 하면서 아놀드가 웨스트포인트 방어 계획을 영국군에게 팔기 위해 작전을 짰다는 내용의 편지를 찾아냈다. 충격에 휩싸인 해밀턴은 이를 “가장 사악한 반역”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밀턴은 아놀드의 신경 과민한 아내인 패기를 동정했다. 후에 그녀는 친한 친구, 시오도시아 프리보스트의 집으로 도망갔다. 프리보스트 부인 집에 있으면서, 패기는 자신이 남편 아놀드가 반역을 저지르도록 설득했다고 자백했다.

해밀턴은 그가 사랑하는 애국심이 강한 여인과 더 좋은 시간을 보냈다. 1780년 12월 14일, 그와 엘리자베스 스카일러는 뉴욕 알바니의 스카일러 가 저택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스카일러 가족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해밀턴은 마침내 가족의 품을 느꼈을 지도 몰랐다. 그리고 스카일러 가는 뉴욕 주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다.

신혼부부는 뉴 윈저에 자리 잡은 워싱턴의 겨울 야영지에 합류했다. 그러나 두 남자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해밀턴은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 했지만, 워싱턴은 계속 허락하지 않았다. 두 달 후에, 해밀턴은 워싱턴의 부관을 그만둔다. 그는 사무직을 너무 오래 했다고 생각했다. “훌륭한 그 분과 나 사이에 일이 좀 생겼다.” 그가 말한 전부였다.

결국, 1781년, 버와 로버트 트로프가 법 공부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해밀턴은 보병 대대 소속이 되었다. 가을까지 그는 16,000명의 미군과 프랑스군과 함께 이 전쟁의 마지막 전투에서 버지니아 요크타운에 있는 콘월리스 장군의 영국군을 포위했다.

1781년 10월 14일 밤, “착검하라!” 해밀턴은 명령했다. “나를 따르라!”

세 보병 대대의 대장으로 그는 총탄을 피하며 탁 트인 곳을 가로 질러 400미터 질주해서 영국군의 요새를 함락시켰다. 프랑스군이 마지막 전초 기지를 장악하면서 전쟁은 승리했다.

기쁨에 겨운 해밀턴은 엘리자에게 “내일이 되면 콘월리스와 그의 군사들이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되었다.

5년 후, 해밀턴은 전쟁에서의 용맹함과 최고사령관을 위한 봉사로 영웅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세인트 크로이 섬의 14살 소년 알렉산더 해밀턴은 전쟁에서 이름을 떨치길 꿈꿨다. 마침내 그 꿈을 이뤘고, 더 많은 걸 실현했다.

## 제5장

### 변호사가 되어: 1781-1789



#### 버

아론 버는 시오도시아 프리보스트와 결혼하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에게 부양해야 할 아내와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이 생길 것이었다. 그는 뉴욕 주의 수도 알바니에서 뉴욕 변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한다. 법원은 1년간의 법 공부로는 부족하다고 3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럴 수는 없었다. 버는 그와 같은 참전 용사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고 판사들을 설득했다. 바로 버는 자격증을 획득했다. 아론 버와 시오도시아 프리보스트는 1782년 7월 2일 뉴저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바로 뉴욕 알바니로 갔다.

알바니는 비포장도로의 개척 도시로 겨우 3,000명의 주민이 사는 곳이었다. 개척 도시인 것과 상관없이, 버는 돈을 벌고 유명해지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어쨌든, 그는 질 좋은 와인, 화려한 마차 그리고 비싼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걸 좋아했다. 그러나 시오는 재정 부족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당장 “궁핍”이란 문제가 있었다. 다행히 버의

훌륭한 집안 배경 덕분에 알바니 사교계의 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알렉산더 해밀턴도 알바니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알바니 사교계는 이미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쨌든, 엘리자 해밀턴은 스카일러 가문 출신이었고, 스카일러 가문이 알바니를 좌우했다. 버와 해밀턴은 어쩌면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만났을 지도 모르지만, 변호사가 되고 나서야 친구가 되었다.

버의 가족들은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1783년, 딸 시오도시아가 탄생하면서 삶은 더욱 좋아졌다. 그의 아내는 자신의 아이를 “사랑스러운 딸” 이라고 했다.

그러나 뉴욕이 손짓하고 있었다.

1783년 공식적으로 독립 전쟁이 끝이 나자, 영국인들은 뉴욕을 떠났다. 버는 뉴욕에서의 많은 사건 수임을 상상할 수 있었지만, 뉴욕으로의 이주는 그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많은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든든한 티모시 에드워드 삼촌이 빌려준 돈으로 버는 뉴욕으로 갔다.

영국인들은 엉망진창의 이 도시를 떠났다. 약 2,000여 채의 건물들이 불에 탔다. 소들이 쓰레기로 가득한 거리를 어슬렁거렸다. 건물들과 교회들은 병원, 감옥 혹은 창고로 쓰였다. 이스트사이드는 텐트와 판잣집이 즐비한 황폐한 지역으로 되었다.

버의 생각이 옳았다. 이런 혼돈은 변호사에게 큰돈을 가져다 줬다. 그는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 알렉산더 해밀턴도 뉴욕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버처럼 법률 사무소를 개업했다. 즉시 두 남자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도시를 편안하게 여겼고, 둘은 바로 충실한 뉴요커로 태어났다.

버와 해밀턴 둘 다 법정 변호사로 시작했는데, 종종 같은 사건에서 함께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상대측 변호사로 만났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변호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다. 버는 절제가 있으면서 간결하고, 차분했다. 해밀턴은 달랐다. 그는 열정적이었고, 논쟁을 좋아했으며 말을 많이 했다.

“버는 해밀턴이 2시간 말할 내용을 30분 안에 했다.” 판사가 말했다. 동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분석했다. “해밀턴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다.” 버는 “우선 마음속에서 정리한 후에 말을 했다.”

여전히 두 남자에겐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버가 절대 가족의 역사를 잊지 않

있던 반면, 해밀턴은 자신이 사생아라는 사실에 사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똑똑하고 야심이 넘쳤다. 그리고 둘 다 대령이란 호칭을 고집했다. 상류 사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빗을 졌는데, 특히 매우 외향적인 아론 버가 그랬다.

버는 뉴욕에서 유명해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뉴욕에 온 지 1년 만에, 그는 뉴욕 주 의원으로 지명되었다. 버는 감정을 잘 나타내는 편이 아니었는데, 점차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오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설전에 뛰어 들어가서 “점차적”인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번에 노예제를 없애는 법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는 버의 제안과 법안을 거부했다.

버가 노예제 폐지의 뜻을 비쳤지만, 사실 그는 수년간 집안일을 하는 노예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해밀턴도 노예제 폐지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뉴욕 노예 해방 협회에서 활동했지만, 그가 한 두 명 정도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있었다.

버는 1년 만에 의원직을 그만뒀다. 노예제 폐지 법안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그는 돌아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만 했다. “범선에서 마차로, 마차에서 카누로, 카누에서 다시 범선”을 타며, 여행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의 사건을 맡아 이동했다. 1785년은 매우 기쁜 해였다. 버의 두 번째 딸, 샬리가 태어났다.

버의 가족들은 하늘에서 땅 끝까지 떨어지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 3년 후, 버는 매형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는 막내를 잃었어요. 우리 샬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버가 계속해서 “엄청난 두통”과 몬머스 전투에서 처음 발병한 “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시오도시아는 하루는 잘 지냈다가 다음날엔 암 투병에서 오는 끔찍한 고통으로 힘들어했다.

버 가족들의 삶이 힘들었던 반면, 새로 태어난 미국은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었다. 1788년, 미국 헌법이 이 땅의 최고법이 되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존 애덤스는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두 번째 당인 민주-공화당이 생길 때까지 연방당이 이 나라에 유일한 정당이었다.

1789년, 버는 변호사로서 엄청난 명성을 쌓는다. 그 해, 민주-공화당 소속인

조지 클린턴 주지사가 그에게 뉴욕 주의 검찰 총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버는 주저했다. 그는 자신을 “진지하고 조용한 부류” 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친구들조차도 그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내키지 않아서 민주-공화당인지 연방당인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 의회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선호하는 당을 결정해야 했다.

버는 클린턴 주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끼어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민주-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검찰 총장이 됨으로써, 아론 버는 정확한 민주-공화당 사람이 되었다.



해밀턴

1781년, 알렉산더 해밀턴은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법 공부를 시작했다. 알바니에 있는 스카일러 가의 대저택에서 사는 것도 좋았지만, 알렉산더와 엘리자는 자신만의 집을 갖고 싶어 했고, 그래서 돈이 필요했다. 킹스 컬리지 시절부터 알아온 오랜 친구 로버트 트로프는 아론 버와 법 공부를 함께 했었다. 그는 자진해서 해밀턴의 공부를 가르쳐줬고 해밀턴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돈을 벌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아론 버 덕택에, 참전 용사들은 더 이상 3년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다. 공부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참전 용사 해밀턴은 뉴욕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축하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782년 1월, 그의 첫 번째 아이, 필립의 탄생을 축하했다. “아내가 아주 예쁜 남자 아이를 낳아 줬어.” 그는 친구에게 자랑



했다.

해밀턴이 전쟁 영웅이라는 사실과 처남 필립 스카일러가 가장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다. 알바니에 있는 그의 법률 사무소는 번창했고, 그와 엘리자는 아주 바쁜 사고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버와 마찬가지로, 해밀턴도 뉴욕의 매력에 빠졌다.

해밀턴 가족들은 바로 뉴욕으로 이사했지만, 그들의 57번가 동네는 버의 멋진 3번가 동네만큼 부유하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서 해밀턴 집에 두 명이 아이가 더 태어났다. 딸 안젤리카와 아들 알렉산더였다. 해밀턴 가족은 고아 한 명을 데려 오기까지 했다. 아마도 해밀턴의 슬픈 유년시절이 그를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다정한 아버지로 만들었을 것이다.

점점 늘어나는 식구들의 부양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해밀턴은 수입료로 햄 한 통이나 치킨 한 마리를 주는 가난한 고객들의 사건을 맡았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쟁 시기에 영국에게 충성을 바쳤던 고객들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영제국 치하에서 고통 받았던 뉴욕자들은 이 사실을 맘에 들어 하지 않았다.

두 남자 다 배심원들의 혼을 뺏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해밀턴과 버의 논쟁을 구경하는 것이 곧 뉴욕의 관광 이벤트가 되었다. 해밀턴의 하늘색 눈, 혈색 좋은 얼굴빛 그리고 매일 이발소에서 손질 받는 적갈색의 머리가 잘생긴 얼굴을 더 돋보이게 했다. 몇몇 사람들은 해밀턴이 뻗뻗하고 건방지다고 생각했지만, 한 판사는 그를 “정감 있고, 관대하고, 부드러우며,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해밀턴은 1784년 뉴욕 주 최초의 은행인 뉴욕 은행을 설립하게 되면서 근무 시간을 한 시간 더 추가한다. 해밀턴은 이 은행이 전쟁 피해를 입은 뉴욕의 사업가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실제로 그러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뉴욕에 혼란스럽게 돌고 있는 지역, 주, 외국 화폐를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뉴욕은 나아지고 있었지만, 미국은 아니었다. 어린 아이들처럼, 13개의 주는 모든 문제-경계선, 돈, 세금 그리고 무역-를 가지고 다녔다. 해밀턴은 하나 되지 않은 미국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버가 먼저 했던 것처럼, 그



는 변호사 일을 쉬고, 뉴욕 의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 해밀턴은 국가의 문제가 “나를 또 다시 공직자의 길로 이끌었다” 고 말했다.

하지만 해밀턴 의원은 출장을 자주 다닐 거라 생각하지 않았었다. 우선 미국을 통치하는 법체계의 변경 권고를 위해 소집된 아나폴리스 회의에 대표자로 메릴랜드에 가야했다. 그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변경 권고 그 이상을 했다. 그는 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매년 역동적인 연설을 해 온 해밀턴은 원하는 걸 얻었다. 모든 주에서 다음 해에 열릴 헌법 제정 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것은 해밀턴이 1787년에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는 걸 의미했고, 이번에는 헌법 제정 회의 대표로 필라델피아로 향했다. 기쁘게도, 오래된 법을 개선하자는 말 대신에, 대표들은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해밀턴은 확고한 의견을 내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걸로 유명했다. 놀랍게도 그는 그 회의에서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해밀턴은 모든 회의 결정을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1787년 9월17일, 후덥지근한 필라델피아 여름 끝자락에, 그와 다른 대표들은 미국의 새로운 헌법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서명으로 헌법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13개주 중 7개 주의 비준이나 승인이 있어야만 했다.

이제는 해밀턴의 협력자들이 나서야 할 때였다. 난처한 상황 없이 헌법을 비준하기 위해선 뉴욕이 필요했다. 그는 헌법을 반대하는 뉴욕의 가장 힘 있는 정치인 조지 클린턴 주지사를 전혀 귀찮게 하지 않았다. 해밀턴은 그저 클린턴이 “공익보다 자신의 권력에 더 큰 애착” 을 갖고 있다고 신문에 기고문을 쓰기만 했다. 클린턴의 세력들은 이 모욕을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해밀턴이 “알파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며 항변했다.

해밀턴과 클린턴은 남은 평생 동안 정적이 되었다.

해밀턴은 그 다음, 변호사 제임스 매디슨과 존 제이에게 헌법 반대에 제기되고 있는 모든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한 뉴욕 신문사는 「연방주의자」라는 제목의 85개의 논고를 실었고, 이는 후에 「연방주의자 논문집」이라고 알려진다.

존 제이는 5개의 논고를 썼다. 제임스 매디슨은 29개의 논고를 쓰며 더 뛰어

난 활약을 했다. 눈부신 명문장가 해밀턴은 51개의 논고를 썼다. 그는 사무실 밖에서 인쇄기가 작업 중인 논고를 기다리고 있는 압박 속에서도 글을 썼다. 논고들은 나중에 600쪽의 책으로 만들어졌고, 토마스 제퍼슨은 이 책을 “정부의 원칙들에 관해 쓴 논평집 중 역대 최고” 라고 극찬했다. 최고까진 아닐지라도 최고에 가까웠다. 「연방주의자」는 세월의 시험에서 여전히 살아남고 있다.

뉴욕회의에서 헌법에 관한 찬반 투표가 실시되었고, 클린턴 주지사는 이를 지지하는데 필사적이었다. 반면에 해밀턴은 헌법을 지지하는 26번의 연설을 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결국, 미 헌법은 가까스로 통과됐다. 해밀턴은 모든 공로를 인정받았고, 받아 마땅했다.

뉴욕은 현수막에 꽃수레, 거대한 퍼레이드를 하며 도심을 빨갭게 물들이면서 축하했다. 5,000명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공구들을 들고 브로드웨이에서 시가 행진을 했다. 로버트 트로프는 행진하는 다른 뉴욕 변호사들과 함께 헌법 사본을 드는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군중들은 10 마리의 말이 끄는 해밀턴이라 불리는 모형 선박의 큰 꽃마차에 가장 큰 환호를 보냈다. 한 구경꾼이 특히나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니콜라스 크루거, 세인트 크로이 섬에서 온 해밀턴의 전 사장이었다. 그는 16년 전에 어린 알렉스의 가능성을 보고 미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 이 가능성이 어떻게 꽃피웠는지 보라!

아론 버도 그의 동료 변호사들과 행진했을까? 그 해 여름 그는 사업차 도시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상관없었다. 그는 알렉산더 해밀턴이 그날의 영웅이란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 제6장

### 정치인이 되어: 1789-1797



해밀턴

1789년,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면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승승장구했다. 워싱턴은 해밀턴에게 재무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연봉 3,500달러는 아내와 5명의 아이들을 부양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지만, 해밀턴은 재정 관리의 수장이자 세금 관리자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 왔었다. 해밀턴은 “이것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부했다.

문제는 확실히 공급부족에 있는 게 아니었다. 미국은 독립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나라에서 약 800만 달러의 돈과 물자를 빌렸다. 곧 수백만 달러를 갚아야 했다. 그러나 해밀턴은 당황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 그는 돈을 모았다. 결국 전쟁 승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그는 “미국의 부채는 자유에 대한 대가였다” 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밀턴은 미국이 채무를 갚을 때까지 다른 나라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는 연방정부가 빚을 일시불로 갚을 수 있도록 의회가 모든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빚을 합치는 법안을 통과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

나 남부 의원들이 그 법안을 반대했다. 남부지역은 채무 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왜 남부 사람들이 다른 주의 빛을 갚는데 도움을 줘야 하나고 주장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성의 힘이 필요해지면서, 미국 내 최고의 두뇌를 가진 세 사람-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국무장관 토마스 제퍼슨, 의원 제임스 매디슨-이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역사를 바꿨다. 저녁 시간 동안 그들은 남부 의원을 이길 계획을 세웠다. 남부 지역의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사이에 국가의 수도를 세우고 이를 워싱턴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다. 10년간 워싱턴을 세우는 동안, 필라델피아가 임시 수도가 되었다. 1800년에 수도 워싱턴이 완성되자, 정부는 새로운 수도로 완전히 옮겼다.

남부 의원들은 남부에 수도가 들어선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만세!

그러나 필라델피아가 10년간 임시수도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5년 동안의 수도 뉴욕 시절이 끝이 났다. 이제 해밀턴은 가족들이 살아갈 필라델피아에 집을 구해야만 했다. 그는 “가능한 사무실과 가까우면서… 임대료가 가능하고… 싸면 더 좋은” 집을 원했다. 그는 결국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집을 빌렸다.

해밀턴 가족들은 사랑하는 뉴욕을 떠나기가 너무 싫었지만, 그들은 짐을 싸고 1790년 필라델피아로 갔다.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면서 가장 바쁜 항구 도시로 “미국의 첫 번째 도시” 라고 알려져 있었다. 필라델피아는 미술, 문학 그리고 연극에 관해 교양이 넘치고 열정적인 도시였지만, 뉴욕이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흥미로운 조합은 없었다.

해밀턴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텅 빈 국가 금고를 채우는 것이었다. 그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것에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면 돈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바로 관세청을 만들었다. 그는 등대, 무선 송신소, 부표를 설치하고, 사람들을 고용해 부두를 관리하게 하고, 밀수업자들을 정찰할 10척의 배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첫 선박이 후에 미국 연안 경비대가 되었다.

은행들도 해밀턴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뉴욕에 있는 그의 은행은 큰 성공을

거뒀다. 국가 은행을 여는 게 어떨까? 안됩니다, 토마스 제퍼슨 국무장관이 항의했다. 헌법이 국가 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밀턴은 헌법이 금지만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허용이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국가 은행을 금지하지 않았다.

워싱턴 대통령이 해밀턴의 의견을 검토한 후,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밀턴의 꿈-미국은행-이 실현되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해밀턴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헌법이 변화하는 조건과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유연한 문서라는 걸 증명했다는 것이다.

국가 은행에서 공식적인 지폐를 발행하고 있었다. 이제 공식적인 주화를 주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적합한 화폐를 없애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밀턴은 연방 달러, 10센트 동전, 5센트 동전, 1센트, 0.5센트 동전을 만드는 미국 조폐국 설립을 감독했다.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해밀턴 곁으로 “검투사”라고 불리는 충성스런 지지자들이 모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추종자는 아니었다. “의원들은 집에 가도 돼. 해밀턴 장관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그가 시도한 건 다 성공하잖아.” 한 상원의원이 투덜거렸다.

해밀턴은 너무 바빠지면서 뉴욕 정치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아론 버가 뉴욕의 상원 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놀랐다.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버가 거의 임기가 다한 해밀턴의 장인, 연방주의자 상원 의원 필립 스카일러에 맞선다는 점이였다. 해밀턴은 바로 편지를 돌렸고 버 후보를 막기 위해 그의 영향력을 사용했다.

그러나 민주-공화당의 버는 조지 클린턴 주지사와 뉴욕에서 가장 강력한 리빙스턴 가문에 지원을 받아 선거에서 승리한다. 장인과 같은 연방주의자인 해밀턴은 분노했다. 그는 버가 “최악의 인간-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며 호통 치며 말했다. 해밀턴은 버를 법정에서의 경쟁자로 여겨왔다. 버는 이제 정적이였다.

또 다른 정적은 민주-공화당의 토마스 제퍼슨 국무장관이였다. 연방주의자인 해밀턴은 제퍼슨을 “감정이 격한 엄청난 야심가” 라고 했지만, 해밀턴 자신도 야심이 넘치고 욕하는 성질을 갖고 있었다.

제퍼슨은 “정치인으로서, 두 남자가 이보다 더 정반대의 원칙을 갖는 것은 불가능했다.” 고 말했다. 사실이였다.

연방주의자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공직에서는 잘 교육받은 사람이 정부에 안정적인 힘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민주-공화당의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공무를 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 하는 소극적인 중앙정부를 선호했다.

해밀턴과 제퍼슨의 공개적인 다툼은 워싱턴 대통령을 매우 불편하게 했다. 특히, 서로가 상대가 사임하도록 배후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793년 제퍼슨이 사임하면서 해밀턴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러나 1793년 여름, 모든 정치인들이 황열병 유행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몇 개월 만에 4,000명의 필라델피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9월, 해밀턴은 무너진다. 그의 아내 엘리자가 며칠 뒤에 병에 걸린 것이다. 다행히, 해밀턴의 세인트 크로이 섬의 죽마고우이자, “영원한 친구” 네드 스티븐스가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다. 더 다행인 점은 의사인 스티븐스가 세인트 크로이 섬에서 수백 명의 황열병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이었다. 환자들의 피를 뽑고 구토하게 하는 일반적인 치료법을 따르는 대신에 스티븐스는 키니네와 토닉을 환자들에게 주었고 차가운 목욕을 하게했다. 스티븐스 덕분에 해밀턴의 가족은 5일 만에 회복한다.

다음 해, 다른 종류의 문제가 불거졌다. 펜실베이니아의 농부들은 해밀턴이 술에 부과한 새로운 세금을 아주 싫어했다. 왜 안 그렇겠는가? 그들은 곡물을 직접 길러 증류해서 위스키를 만들고 있었다. 한 상원의원은 그 세금이 “전쟁과 유혈사태”를 일으킬 거라고 예측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위스키 반란 중, 농부들과 증류업자들은 세무 관리자들 몸에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썩여 벌했고, 그들의 말을 훔쳤으며 집을 불태웠다. 최후의 결정타는 5,000명의 반란자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워싱턴 대통령은 민병대를 소집하고 해밀턴에게 지휘를 맡겼다. 군의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 지휘는 해밀턴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농

부들에게 해밀턴이 12,000명의 민병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단 한발의 충성도 없이 반란은 흐지부지 되었다.

5년의 임기 후, 해밀턴 재무장관은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을 해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게다가, 다섯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의 급여로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1795년, 해밀턴은 사임한다. “저는 더 이상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이제 민간인이 됩니다.”

“공직자”로서의 알렉산더 해밀턴은 정치적 거물이자 국가 권력 서열 2위였고, 워싱턴 대통령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 “민간인” 해밀턴은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돌아가서 법률 사무소를 다시 열었다.

정치와 작별을 고했을까? 절대 아니었다!



## 버

1789년부터 1791년까지 알렉산더 해밀턴이 조지 워싱턴의 재무 장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아론 버는 2년간 뉴욕 주의 검찰 총장으로 지내며 엄청난 양의 사무를 봤다. 독립 전쟁 군인들이 체불 임금 청산을 요구했고, 집주인들은 영국군에 의한 피해 소송을 걸었으며, 대출기관들은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버에게 검찰 총장 자리는 2년으로 충분했다. 게다가, 그는 변함없이 야심이 넘쳤고, 검찰총장직은 정치적으로 막다른 길이었다. 1791년, 그는 전국 무대로 뛰어 들어가 알렉산더 해밀턴의 장인인 필립 스카일러에 맞서 뉴욕 주 상원의원으



로 출마했다. 연방주의자 스카일러는 뉴욕의 가장 힘 있는 가문의 수장이었지만, 또 다른 뉴욕의 권세가인 조지 클린턴 가와 로버트 리빙스턴 가는 민주-공화당이였다. 그들의 지원으로 민주-공화당의 후보 버가 거뜬히 선거에서 이겼다.

숨기는 경향이 있는 버는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절대 종이에 써서 남기지 않았고, 설사 하더라도 암호를 사용했다. 그는 “쓰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뉴욕의 새 상원의원이 된 35살의 버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선거로 필라델피아의 몇몇 사람들 속 좀 쓰릴 거야.” 라고 썼다.

얼마나 절제된 표현인가! 임시수도 필라델피아로 돌아가 있었던 해밀턴은 속이 쓰린 정도 아니라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리고 버에게 축하를 전하는 대신에, 그는 버가 뒤에서 난잡하게 떠들고 있다며 비난했다.

정치에 발 담근 지 오래지 않아서 버는 완전히 그 곳에 빠져 버렸다. 그는 한 때 자신의 직업 결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평생의 사랑인 정치를 알게 되었고 “매우 재미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해밀턴에게 검투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버도 곧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인 “버티스”에게 둘러싸였다.

필라델피아에서 상원이 개최되면서, 버는 1주일 먼저 도착해 집을 구했다. 해밀턴은 쉽게 집을 구하지 못했는데, 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내 시오에게 “내가 쉽게 만족하는 성격이 아니라 문제가 좀 있소…좋은 집을 구하는 게 참 힘들 구려.” 라고 편지 했다. 그리고 넉넉지 않은 자금도 일을 힘들게 했다. 버는 하루에 6달러 정도 벌고 있었다.

버는 필라델피아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뉴욕 정치뿐만 아니라 시오에게가 있었다. 그의 아내는 수도를 좋아하지 않았고 이사 가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게다가, 암이 진행되어서, 그녀는 몸 저 누워있었다. 그러나 버는 야심이 넘쳤고, 또한 똑똑했다. 그는 일석이조의 방책을 갖고 영광스럽게 뉴욕으로 돌아왔다. 그는 뉴욕 주지사 출마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안된 상원활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그는 꿈을 보류했다…잠시 동안.

버는 곧 다른 꿈을 꿔다. 1792년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부통령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꿈 말이다. “그는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군.” 해밀턴은 버의 계획을 듣고 날카롭게 말했다. “그의 경력을 저지하



는 것이 내 종교적 의무인 거 같은 느낌이 드는군.”

해밀턴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다. 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 조지 클린턴이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출마했다. 그러나 제퍼슨과 클린턴은 어느 지역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연방주의자인 워싱턴 대통령과 존 애덤스 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1794년 조지 워싱턴이 위스킨 반란 진압 책임자로 해밀턴을 지명한 그 해에, 시오도시아 버가 세상을 떠났다. 버는 아내를 “내가 이룬 성공보다 더 큰 행복을 준 여자” 라고 했다. 그녀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버는 더 이상 뉴욕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었다. 잠시 동안, 그는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정치적 미래가 그의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버는 대부분의 상원의원들이 어디에 투표할 것인지 알 때까지 상원 투표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다른 민주-공화당 의원들과 항상 뜻을 함께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그를 “그들 중 하나”로 여기지 않았다고 한 상원의원이 말했다.

버가 대부분의 상원 투표에 끼어드는 건 망설였을지 모르지만, 전부는 아닐지라도, 워싱턴과 해밀턴의 계획을 반대하는 일엔 주저하지 않았다. 1794년, 버는 조지 워싱턴이 대영제국 특별 대사에 존 제이를 지명하자 반대했다. 그리고 존 제이가 양국의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해소하는 조약을 갖고 돌아오자, 버는 제이 조약 또한 반대했다.

버 상원의원이 워싱턴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워싱턴은 버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버가 독립전쟁역사서를 쓰기 위해 국무부에서 조사를 시작했을 때, 워싱턴이 그에게 국무부 문서들을 보는 걸 멈추라고 지시했다. 분노한 버는 이 지시를 그의 예전 사령관이 주는 개인적인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게 사실이었다.)

워싱턴은 버가 새로운 프랑스 대사 지명자로 고려되자 다시 한 번 그에게 모욕을 줬다. 버는 그 직책을 원했다. 그러나 버의 이름이 올라가자, 워싱턴은 청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자리도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지자들이 한 번 더 버의 이름을 올렸다. 두 번째 거부가 나왔다. 그들이 세 번째로 버를 추천하자, 워싱턴은 그들을 만나는 걸 거부했다. 맞든 틀리든, 버는 해밀턴 때문에 워싱턴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고 항상 비난했다.

프랑스 대사 직책을 얻지 못해 화가 났지만, 버는 1795년 선거에서 뉴욕 주지사 출마에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언론이 버 대세론에 편승하지 않으려고 했다. 한 기자는 “버가 이 당파, 저 당파에 속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당파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비난한다고 했다.

버가 뉴욕 주지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해밀턴은 그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그의 최선은 성공을 거뒀다. 그는 연방당의 후보로 뉴욕 주지사에 출마해야 한다고 대법원의 수석 재판관인 존 제이를 설득했다. 인기가 많았던 존 제이가 쉽게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버는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마다 해밀턴이 방해를 한다며 분노했다.

그러나 불굴의 버 상원의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바로 그 다음해, 그는 더 중요한 것을 찾게 된다. 바로 미국의 부통령 자리였다. 어떤 정치인도 버보다 자기 홍보를 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1796년 선거에서 꾸준히 자신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연락을 했다. 지금 공화당의 전신, 민주-공화당은 토마스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버를 부통령으로 내세웠다. 아론 버 후보의 열정이 끌어올랐다.

헌법은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 그 다음 최다 득표자가 부통령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심하게 어울리지 않는 2인조가 선출되었다. 연방당의 존 애덤스가 대통령이 되었고, 공화당의 토마스 제퍼슨이 부통령이 되었다. 최소 득표를 받은 버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그의 정신력도 어쩔 수가 없었다. 버지니아 정치인은 “나는 버 의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활동하는 걸 봤다. 그리고 곧 그의 그런 성격이 우리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란 걸 알아챘다.” 고 언급했다.

그 다음 해에 버의 6년간의 상원 임기가 끝이 났다. 1791년 상원 선거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좋은 싫든 뉴욕으로 돌아가서 그가 그만뒀던 법률 사무소를 다시 열 수 밖에 없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뉴욕에서 살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버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버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알지 못했다. 알렉산더 해밀턴과 마찬가지로, 아론 버는 법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는 정치를 그만 둘 의사가 전혀 없었다.

## 제7장

### 친구가 되어: 1797-1800



해밀턴

1797년 워싱턴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알렉산더 해밀턴의 모든 백악관 인맥이 끊어지게 된다. 왜 아니겠는가? 공직에서 물러난 뉴욕의 변호사일 뿐이지만, 해밀턴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연방주의자 인사였다. 그는 1796년 선거에서 연방당의 존 애덤스가 아닌 연방당의 다른 후보를 지지했었다. 결국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해밀턴에게 분노했다. 그는 결코 해밀턴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애덤스보다 더 큰 문제가 해밀턴의 손에 놓여졌다. 비열한 신문 기자 제임스 칼렌더가 해밀턴이 재무 장관 시절, 정부 자금을 부정하게 처리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기사를 쓴 것이었다. 증거로 해밀턴이 제임스 레이놀드라는 남자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혐의였다. 해밀턴은 즉시 그의 입장을 표명하는 사설을 발표했다. 그렇다. 그는 레이놀드에게 협박 받았다. 그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레이놀드의 아내, 마리아와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레이놀드에게 돈을 준 것이었다. “저의 진짜 죄는 레이놀드 아내와

의 간통입니다.” 해밀턴은 고백했다.

「레이놀드 팜플렛」이라 불리는 이 글은 바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해밀턴의 친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검투사” 중 한명은 그 글을 “극도의 수치”라고 까지 했다. 해밀턴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정부의 재정을 축내는 사기꾼으로 누명을 쓰기 보다는 가족을 배신한 남자가 되는 편이 명백히 낫다고 생각했다.

이 고백은 공화당이 언론으로 해밀턴을 사정없이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놀랍게도, 아론 버가 동료 공화당 친구들보다 더 넓은 이해심을 보였다. 그는 재무 장관 시절 해밀턴의 청렴함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여전히 해밀턴의 진실성을 믿는다고 했다.

「레이놀드 팜플렛」에 모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프랑스 해적이 미국 선박을 탈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밀턴은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평화 회담을 위해 프랑스에 특사를 보내기로 한 애덤스 대통령의 결정에 찬성한다. 그리고 그는 애덤스의 해군 확대 결정에도 찬성했다. “진정한 견고함은 모든 것에 좋다. 과시는 어떤 것에도 도움이 안 된다.” 해밀턴은 말했다.

그러나 평화 회담이 실패하면서 프랑스와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1798년 애덤스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에게 임시군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워싱턴은 해밀턴이 장성급의 부사령관으로 온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응답했다. 애덤스는 해밀턴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였다. 14살 때부터 군의 영예를 갈망했던 해밀턴은 기뻐했다.

퀴시 전쟁-프랑스와의 준전시상태는 갈수록 심각해졌다. 그리고 군 지휘권을 갖게 된 해밀턴은 더 이상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 어쨌든, 해밀턴은 전쟁이 발발한다면 부사령관으로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다.

아론 버가 두 번째 상원 임기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오자, 해밀턴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버가 공화당에서 연방당으로 올 수 있다는 암시를 주웠기 때문이다. “버! 그 친구가 드디어 자신이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걸 알기 시작했군.” 연방주의자 해밀턴이 큰소리치며 말했다. 그는 심지어 잠재적 프랑스 공격에 대비해 뉴욕 항을 요새화 하는 일에 함께 하자며 버를 설득했다.

일 중독자인 해밀턴 장군은 그의 법률사무소는 한쪽으로 치우고 전쟁을 준비

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았다. “해밀턴의 취미는 군대이다”라고 애덤스는 조롱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취미는 군대였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열정적으로 그는 부대를 정비하고, 탄약을 비축하고, 물자를 주문하며, 훈련서를 쓰고, 군복을 만들었다. 자신의 품격 있는 군복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런데 프랑스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프랑스가 결국 평화 회담을 위해 만나자고 한 것이었다. 애덤스 대통령이 평화 특사를 임명하려고 하자, 해밀턴은 길길이 뛰었다. 애덤스가 바보 같은 결정을 하려는 걸 막기 위해, 해밀턴은 그와 정면으로 맞섰다. 애덤스는 그 만남을 “뜻밖이고, 요청 받지 않았으며, 원치 않은…해밀턴의 습관적인 무례함의 표본”이라고 했다.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던 해밀턴은 존 애덤스의 마음을 전혀 돌리지 못했다. 이 만남이 너무 적대적이어서 둘은 후에 다시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평화의 가능성이 보였지만, 해밀턴 장군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군사 준비에 몰두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아론 버가 뉴욕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해밀턴에게 줬다. 1798년 뉴욕 전역에 황열병 유행이 엄습했을 때, 오염된 우물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버는 해밀턴에게 맨하튼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깨끗한 물을 브롱크스 강에서 도시로 연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밀턴이 그를 도와줬을까? 해밀턴은 확실히 도와줬다. 변호사로서의 모든 기량을 발휘해서, 해밀턴은 뉴욕 의회가 맨하튼 컴퍼니 승인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는 주요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맨하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일곱 번째 아이를 가졌을 그 때가 1799년 중 해밀턴의 유일한 전성기였다. 군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그의 법률 사무소는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돈까지 다 떨어지고 있었다. 6월, 해밀턴은 아버지가 카리브 해 작은 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11살 이후로 아버지를 본 적도 없었지만, 그는 심란해 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그는 평화 특사단이 프랑스로 향했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불행한 해의 불행한 마무리로, 1776년 이래로 함께 한 해밀턴의 정신적 지주이자 친구인 조지 워싱턴이 12월에 숨을 거뒀다. “나의 마음은 우울하고, 나의 심장은 슬프다” 해밀턴은 비통해 했다.

마침내, 1800년, 프랑스와의 평화 조약으로 퀴시 전쟁은 끝이 났다. 평화로 더

이상 임시군은 필요가 없어졌고, 무공에 대한 해밀턴의 희망은 꺾였다. 애덤스의 성공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여전히 화가 난 해밀턴은 애덤스가 대통령 재선을 도전하는 해에 애덤스를 무너뜨리는데 집착했다. 해밀턴의 슬로건은 “애덤스는 불가능하다.”였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토마스 제퍼슨과 다른 사람도 아닌 아론 버가 또 출마했다. 해밀턴은 애덤스의 재선을 원하지도 않았고, 제퍼슨이나 버가 백악관에 있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연방당의 대통령 후보 찰스 핑크니를 지원했다.

잠시 동안, 연방주의자 해밀턴은 「레이놀드 팜플렛」만큼 충격적인 내용의 사실로 연방주의자 애덤스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실에서 그는 애덤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혐오스런 이기주의...끝이 없는 허영심... 충격적인 품행...통제할 수 없는 성미”를 가진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연방주의자들은 격노했다. 해밀턴은 소속당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프랑스와의 비참한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애덤스가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미국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주의자들의 평화 사절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해밀턴의 애덤스에 관한 사실로 인해 존 애덤스는 참패한다.

공화당의 토마스 제퍼슨과 아론 버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해밀턴 그리고 미국 전체가 놀랐다. 제퍼슨과 버가 대통령 개표에서 동률을 이룬 것이었다.

1800년 12월, 해밀턴은 이보다 더 암울할 수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지난 레이놀드 스캔들을 해결하고 있었고, 휘청거리는 법률 사무소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연방당에서 모든 영향력을 상실했다. 평화 조약은 군대에서의 명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다. 최악은, 토마스 제퍼슨이나 아론 버 중 한 명이 미래의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이 진퇴양난에서 빠져나오는데 수개월이 걸릴지도 몰랐다.

“내 영혼 밑바닥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어둠이 있소.” 알렉산더 해밀턴은 엘리자에게 고백했다.





## 버

1797년, 아론 버는 6년간의 상원 임기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뉴욕은 지난 2년 동안 해밀턴 변호사의 본거지였다. 버도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내 시오가 자신을 맞아 주던 때를 그리워했다. 그나마 사랑스러운 14살 딸 시오도시아가 아빠를 환영해주었다.

시오도시아는 밝고 어린 숙녀였다. 그리고 버는 여자애들도 남자애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항상 생각했다. 그의 아내가 여성들이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난지 충분히 증명하지 않았는가? 그가 일컫는 “공정한 경험”의 일환으로, 버는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 문학, 지리, 철자법, 춤, 피아노, 하프 그리고 승마수업까지 뽀뽀한 일정으로 딸을 가르쳤다. “진도를 다 마친 건 아니지만, 희극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것은 계속해야 한다.” 그는 꾸짖었다. “영국이나 프랑스 역사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매일 사용해야 한다.”

그녀가 17살이 되자, 시오도시아의 학교 교육이 끝이 났다.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대단히 신뢰해서 놀랐단다. 하지만 나는 네가 그 믿음에 맞게 해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버는 칭찬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직 후, 버는 마리아 레이놀즈와의 밀애 때문에 헐박당했다는 해밀턴의 고백에 다른 사람들만큼 충격을 받는다. 최근까지도 버 역시 여성들과 어울렸지만, 그는 항상 사생활을 철저히 숨기며 조심히 지내왔다. 버는 해밀턴이

스캔들을 해명하는데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국 재무 장관으로서의 해밀턴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보증했다.

버는 해밀턴을 두둔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다. 그가 또 한 번 해밀턴의 목숨을 구해 준 건지도 모른다. 해밀턴은 언론에 헐박 이야기를 흘린 사람이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몬로라고 확신했다. 해밀턴은 분노하며 그를 비난했다. 몬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해밀턴은 신사로서의 명예가 의심을 받게 되자 신사답게 몬로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결투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몬로가 아론 버에게 입회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그가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버의 능수능란한 설득 덕분에, 그 결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 프랑스와의 전쟁 준비가 시작되자, 알렉산더 해밀턴이 버를 위해 나서 주었다. 해밀턴처럼, 버도 군대에 빠져있었다. 해밀턴 장군은 워싱턴에게 버를 임시군의 준장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버의 충정을 증명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절대 안 될 일이야! 워싱턴은 버를 여태껏 한 번도 신뢰한 적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워싱턴이 버에게 모욕을 주는 일에 끝은 있는 걸까? 버는 존 애덤스에게 울분을 토했다. 그는 “워싱턴이 무능력의 대표 주자이자 기본 영어 문장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경멸하며” 몹시 화를 냈다.

그래서 군 복무를 하는 대신에 버는 뉴욕의 항구를 강화하는 군 위원회에서 해밀턴과 함께 일했다. 두 남자가 너무 화기애애해서 두 사람 모두의 친구인 로버트 트로프는 매우 놀라워했다. 그는 아론과 알렉산더가 서로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해밀턴은 존 제이 주지사에게 버를 뉴욕 항 방어시설의 책임자로 지명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봤다. “버 대령은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업무에 책임을 다할 사람입니다.” 해밀턴은 제이에게 추천서를 썼다.

존 제이는 몇 년 전 버 상원의원이 대영 제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고안된 제이 조약에 반대하는 표를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대영제국 특별 대사 임명도 반대했던 일을 어찌면 기억했을 지도 모른다. 무슨 이유였던 간에, 제이는 해밀



턴의 부탁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군대에서의 자리도, 항구의 책임자 자리도 얻지 못하게 되자, 버는 정계로 돌아갔다. 그는 뉴욕 의회에 주 의원으로 출마했고 승리했다. 버의 친구들은 전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버에게는 한참 못 미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로버트 트로프조차도 뉴욕 주 의원 자리는 “너의 능력 밑에 일”이라고 버에게 말했다.

하지만 항상 의연했던 버는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주 의원직을 180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토대로 이용하기로 계획했다. 버는 주 의원으로 취임하자마자, 그는 8명에서 10명 정도의 핵심 연방주의자들을 공화당으로 영입하기 위한 설득을 시작했다.

버는 또한 주 의원직을 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활용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한 회사가 회사에 유리한 법안을 만드는데 자신을 포함한 몇몇의 주의원들에게 로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그 회사는 또한 특혜를 위해선 의원들에게 로비가 가능하다고 슬쩍 암시를 줬다.

해밀턴의 처남인 존 처치가 이 거래에 관해 눈치를 채고 버를 뇌물혐의로 고발했다. 명예가 위태로워지자, 버는 처치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두 남자의 결투가 펼쳐졌다. 처치의 총알이 버의 외투에 부딪혔고, 반면에 버는 처치를 완전히 놓쳤다. 그렇게 결투가 끝나면서,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몇 년 전, 버는 전쟁기간동안 워싱턴 장군의 뉴욕 본부에 있었을 때, 처음 봤던 리치몬드 힐 저택을 구했다. 그러나 저택을 관리하고 장식하면서 재정에 구멍이 생겼고, 그는 심하게 빚을 지게 되었다. 뉴욕에는 은행이 두 곳뿐이었다. 뉴욕 은행과 미국 은행 뉴욕지점 둘 다 연방주의자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만든 것이었다. 공화당인 버에게 뉴욕 소재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운은 있을 수 없었다.

버는 결심을 한다. 뉴욕이 필요한 것은 자신과 같은 공화당에게 친절한 은행이었다.

1798년 황열병 유행은 버에게 기회를 줬다. 그는 의회에 법안을 상정해서 뉴욕시로 “깨끗하고 건강에 좋은 물”을 연결하는 맨하튼 컴퍼니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 다음, 버는 알렉산더 해밀턴을 포함한 뉴욕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을 모아서 그를 도와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했다. 해밀턴이 의원들을 아

주 열심히 설득한 끝에 위원회의 모든 사람들은 버의 회사를 승인하는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맨하튼 컴퍼니 설립에 대한 버의 동기는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이타적이지 않았다. 버의 어머니는 그를 “음흉”하다고 했었다. 워싱턴은 버를 “음모자”라고 불렀다. 그들이 옳았다. 법안 투표가 있기 직전, 버는 아무도 눈치 못 챌 “추가안”을 올렸다. 그 “추가안”은 맨하튼 컴퍼니에게 남은 돈으로 원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허가를 줬다. 다른 말로 하면, 맨하튼 컴퍼니가 은행을 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법안은 아주 쉽게 통과됐다.

버는 1분도 낭비하지 않았다. 나중에 체이스 맨하튼 은행이 되는 맨하튼 은행은 5개월 후에 문을 열었다. 맨하튼 컴퍼니가 정말 우물을 파고, 또한 나무 파이프 관을 통해 시의 작은 구역들로 공급되고 있는 챔버스 저수지에서 물을 퍼 올려보기도 했지만, 브롱크스 강에서 뉴욕 시로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흐르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새로 생긴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재정 문제가 나아지자 버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가오는 의회 선거에 쏟아 부었다. 정치 운동은 항상 절제하고 소극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버는 대대적으로 했다. 그 시절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그는 공화당 위원회를 조직하여 기금을 모으고, 소위원회를 지명했으며, 문을 열어 유명한 공화당원들이 사무실을 운영하게 했고, 연설을 하고 마지막으로 연방주의자들이 무얼 하고 있는지 염탐을 했다.

버의 노력은 결실을 거뒀다. 공화당은 13개의 의석을 차지했고,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었다. 그래서 공화당은 다가오는 1800년 총선에서 12명의 공화당 선거인단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선거인단들은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에게 동등한 표 가치로 2표를 투표하는데, 이들의 표가 공화당 후보의 것으로 집계될 수 있었다. 선거 전에도, 버는 한 연방당 의원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뛰어난 선거 운영으로 이길 겁니다.” 라며 자랑을 했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은 그가 바라던 대로 버를 대통령 후보로 올리지 않았다. 그들의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은 버를 부통령 후보로 올림으로써 그의 노고를 보상했다.

투표가 마감되었고, 토머스 제퍼슨과 아론 버가 존 애덤스와 찰스 핑크니를 이

긴 것이 확실했다. 로버트 트로프는 버가 “아주 매우 신나 했다”고 언급했다. 모든 투표의 집계가 끝난 후, 버의 환희는 다른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와 제퍼슨이 각각 선거인단 73표로 대통령 선거에서 동률을 이룬 것이었다.

아론 버는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 제8장

### 적이 되어: 1801-1804



버

대통령 선거에서 아론 버와 토머스 제퍼슨 동률이 나왔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는 헌법의 결정에 달려있었다. 그리고 헌법은 승부를 짓는 일은 하원 의회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아론 버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었다. 그가 자비롭게 물러나서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공화당원들이 원하는 그림이었다. 혹은 하원 의원들을 설득해서 자신에게 표를 주라고 할 수 있었다.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뉴욕으로 돌아갔다. 시오도시아는 1801년 2월, 부유한 남부 남자 조셉 알스톤과 결혼했다. 하원이 미국의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기 바로 9일 전이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그들의 지도자로 토머스 제퍼슨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원의 연방주의자들은 두 명의 공화당 후보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갇혔다. 대부분의 연방주의자들은 제퍼슨을 급진적인 사고를 가진 무신론자라고 생각했지만, 버는 “무난한” 사람으로 봤다.

하지만 “무난하다”는 연방주의자 알렉산더 해밀턴이 버를 묘사하는데 적합한 단어가 아니었다. 해밀턴은 제퍼슨에 대한 반감과 그와 벌인 격렬한 정치적 싸움에도 불구하고, 제퍼슨이 버보다 더 청렴하고 능력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하원의 연방주의자들에게 부정적인 편지들이 빗발치자, 해밀턴은 버를 “공동체에서 가장 부적합하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세 개의 새로운 주들이 북부에 가입하면서, 대선에 승리할 경우, 16개 주 중 9개 주의 다수표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 하원 의원들은 투표를 했다. 매일 버도 제퍼슨도 다수표를 얻지 못했다. 드디어 충분한 의원들이 버의 지지를 철회하면서 36표로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차점자인 아론 버가 부통령이 되었다.

버는 화를 내면서, 선거 패배가 해밀턴이 쓴 아론 버 반대 편지들 탓이라며 비난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던 버는 자신이 바랐던 존경도 얻지 못했다. “만약 버가 그 자신을 위해 무언가라도 했더라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한 의원이 지적했다.

그리고 하원에서 결판내기 전, 자발적으로 대통령직을 넘기는 걸 거부한 일로 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그 때부터, 버는 제퍼슨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다. 제퍼슨은 주지사로 조지 클린턴이 반드시 선출되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뉴욕 내 버의 정치적 힘을 파괴한다. 그 다음, 그는 공화당인 클린턴 가와 리빙스턴 가의 사람들을 뉴욕의 모든 정치적 요직에 임명했다. 버 부통령은 워싱턴에서 “완전히 단절된, 개인적인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 기자는 언급했다.

버는 새로운 수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말고도 외톨이가 되고 있는 상황에 충분히 힘들어했다. 1801년, 워싱턴은 백악관과 국회 의사당이 있고, 하숙집, 작업장, 목재 더미, 벽돌들 그리고 반 정도 지어진 건물들이 있는 곧 쓰러질 거 같은 초라한 마을이었다. 건축 공사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귀청이 터질 듯했다. 주인 잃은 소와 돼지가 진흙탕 거리를 돌아다녔다.

파티나 아름다운 여인을 항상 찾는 버는 동료 의원에게 워싱턴의 밤 문화에

대해 물었다. “저녁 유흥?” 대답이 들려왔다. “그런 건 없소.”

부통령으로서 버의 유일한 일은 상원 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한 상원의원이 그나마 그를 칭찬했다. “그는 항상 상원 회의 전에 주제를 숙지하고,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요점에 국한시켜 논하게 한다.”

상원에서는 동물이 나올 때에만 표결에 부치기로 했는데, 버는 언제나 그랬듯이 의사를 밝히는데 주저했다. 그의 예측할 수 없는 투표 기록은 공화당과 연방주의자들 모두 화나게 했다.

힘든 부통령 임기 동안, 버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그의 딸 시오도시아와 그녀의 가족들이 그를 방문했던 때였다. 그는 자신을 껌피<sup>1</sup>라고 부르는 손자 아론 버 알스톤을 애지중지했다.

1804년, 또 다른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다.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동물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 제12조가 비준되었다. 수정헌법은 모든 선거인단에게 관습에 의해 2표를 투표하게 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동등한 표 가치를 갖지 않았다. 대신에, 한 번은 대통령에게, 나머지 한 번은 부통령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하게 했다.

버는 부통령 자리가 곧 끝이 날 거라는 걸 알만큼 충분히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부통령 시절은 끝이 났다. 제퍼슨은 뉴욕 출신의 조지 클린턴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변함없이 고집스럽게 정치적이었던 버는 뉴욕 주지사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느 정당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소속이었다. 공화당의 클린턴 가와 리빙스턴 가가 뉴욕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연방주의자들의 환심을 사면서 불만족스러워 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뉴욕 대법원의 모건 루이스를 주지사로 지지하고 있던 해밀턴은 다시 한 번 버를 막기 위한 펜을 들었다. “해밀턴은 내 성공을 방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후보라면 누구든지 관심을 보인다.” 버는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속을 끓였다.

말할 것도 없이, 1804년 선거에서, 모건 루이스는 아론 버를 물리치고 뉴욕 주지사로 당선됐다. 버는 노발대발했다. 그는 모든 당에서 철저히 거부당했다. 그리고 지난 7개월간 부통령으로 지냈지만, 사실상, 그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나버

---

<sup>1</sup> 할아버지의 미국식 애칭

렸다. 버는 항상 겉으로는 차분한 것처럼 보였지만, 고약한 성미를 갖고 있었고, 그의 모든 분노는 알렉산더 해밀턴에게로 향했다. 그는 친구에게 해밀턴이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는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해밀턴이 그의 야망을 막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한 횟수를 세어보자. 무려 다섯 번이었다!

처음은 버가 해밀턴의 장인 필립 스카일러에 대항하여 1791년 상원의원으로 출마했을 때였다. 그리고 해밀턴은 그를 물리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는 심지어 버를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절조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버는 그 선거가 가장 만족스러운 승리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워싱턴 대통령이 프랑스 공사에 그를 지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버는 해밀턴 장인의 선거 패배에 대한 보복이라고 확신했다. 해밀턴은 버가 진정으로 원하는 공사 자리를 그에게 주지 말라고 워싱턴을 설득했다. 몇 년 후에,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해밀턴은 대법원 수석 재판관 존 제이를 후보로 만들면서 버의 패배를 보장했다. 제이의 인기가 너무 좋았고,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버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최악은 해밀턴이 하원의 연방주의자들에게 대통령으로 토머스 제퍼슨을 지지하자고 촉구하면서 버가 대통령직을 잃게 했을 때였다. 사실이든 아니든, 버는 해밀턴의 영향력이 패배의 원인이란 생각에 집착했다.

그리고 지금, 입심 좋은 해밀턴이 버가 뉴욕 주지사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뿐만 아니라, 정계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망치기 위해 다시 한 번 펜으로 그를 방해하고 있었다.

해밀턴은 글이 충분히 버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듯이 비공개 저녁 파티에서 버가 “위험하고 절대 못 믿을 사람”이라고 또 말했다. 그러나 해밀턴의 말은 금방 공개가 되었다. 그 파티의 손님이었던 찰스 쿠퍼가 편지에 그 말을 언급했고, 한 뉴욕 신문이 이 편지 내용을 실어버린 것이다. 쿠퍼는 또 다른 편지에도 “버 씨에 대한 해밀턴 장군의 훨씬 더 비열한 의견”을 언급했다. 쿠퍼가 버에 대한 해밀턴의 “비열한 의견”이 무엇인지 말하진 않았지만, 신문사는 두 번째 편지도 기사로 내보냈다.

몇 년간 뒤에서 음모를 꾸미다가, 해밀턴은 드디어 전면에서 버를 모욕하며 글을 써서 공개하기 시작했다. “해밀턴 장군은 여러 시기에, 여러 경우에 따라 언



어를 이용해서 나의 명성에 엄청난 해가 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버는 고통을  
쳤다. 많은 빛에, 정치적 힘까지 없는 버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 그의 명예였다. 그의 분노는 행동에 불을 지폈고, 그 “비열한 의견” 무엇인  
지 해밀턴이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밀턴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5일 동안, 버와 해밀턴은 갈수록  
더 날 선 편지를 교환했다. 편지가 종종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둘러보고, 신문  
에까지 실렸기 때문에, 두 남자-오랜 버의 지지자 윌리엄 반 네스와 해밀턴의  
믿음직한 친구 나다니엘 펜들턴-가 편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했다.

각각의 편지는 두 남자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차단해버렸다. 반 네  
스와 펜들턴 둘 다 버와 해밀턴에게 서로의 간극을 매우라고 강력히 권고했지만,  
어느 누구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6월 27일, 버의 입회인이 되는 반 네스는  
펜들턴에게 공식적으로 결투를 신청했다.

해밀턴은 그 도전을 받아들인다.

날짜: 1804년 7월 11일 장소: 뉴저지 위하큰

결투일 전 2주간, 버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그의 정치 불운과 재정 문  
제를 곱씹었다. 그는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는 것을 고민하지만, 그는 리치몬드  
힐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있을 결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버는 그의 노예들에 관한 지시사항  
만을 딸에게 알려줬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그의 개인적인 모든 서신들, 특히  
여성들과 주고받은 서신을 다 불태우라고 부탁했다. 마지막 편지에 그는 자신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적었다. “나의 사랑하는 시오도시아, 나는 이생에서 누  
린 행복의 가장 큰 부분을 너에게 빚지고 있단다. 나의 마음과 애정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을 네가 완벽하게 충족시켜 준단다.”

결투 바로 전 날 밤, 아론 버는 리치모드 힐 서재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폭  
졌다. 윌리엄 반 네스가 그와 함께 허드슨 강을 넘어 위하큰으로 가기 위해 리치  
몬드 힐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잠에서 깬다.





## 해밀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해밀턴 역시 아론 버와 토머스 제퍼슨이 1800년 대선에서 동률을 이루자 매우 놀랐다. 그는 분명히 제퍼슨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취했지만, 적어도 제퍼슨이 미국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론 버가 갖고 있는 비전은 그 자신을 위한 권력과 힘을 얻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해밀턴은 “제 생각엔, 실질적인 능력에서 버가 제퍼슨보다 열등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주의자들에게 만약 버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면 연방주의자들이 “제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밀턴은 버를 무찌르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난생 처음으로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처하게 되었고, 그의 시름은 깊어졌다. 결국 다행히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해밀턴은 점점 종교에 의존하고, 많은 시간을 그의 아내와 일곱 명의 아이들과 보내면서 그의 실패감은 점차 사라졌다. 그리고 한 쪽에는 허드슨 강이, 반대쪽에는 할렘과 이스트 강이 보이는 할렘 하이츠에 약 42,800평의 대지를 구입하면서 그는 새로운 원천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는 멋진 집을 짓고, 그의 스코틀랜드 조상의 토지의 이름을 따서 그랜지라고 이름을 지었다. “여기에 와야 진정한 즐거움을 알 수 있다.” 고 그는 새 집에 관해서 글을 썼다. 그랜지 저택은 아론 버의 리치몬드 힐 저택에서 불과 8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해밀턴이 새 집을 꾸미자마자, 가족들은 그들의 평생이 바뀔지도 모를 비극에서 고통 받는다. 해밀턴 가의 사람들은 큰 아들 필립을 자랑스러워했다. 해밀턴

은 필립을 가족의 “장남이자 가장 밝은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총명하고 잘 생긴 아들이 “위대한 장래”를 이룩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1801년 11월, 19살 필립이 젊은 변호사 조지 에커와 험한 말을 주고 받는다. 대화중에 에커가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이었다. 필립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에커는 거부했다. 필립도 에커도 물러서지 않아서 그들은 결투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해밀턴은 필립과 결투에 관해 얘기를 나눌 수 없었지만, 아들에게 에커가 총을 들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서 총을 들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결투가 시작되자, 필립은 아버지의 조언을 생각하며 옆구리에 있는 총을 잡았다. 에커도 그렇게 했다. 두 젊은 청년들이 서로 조용히 응시했다. 그리고 에커가 그의 총을 들었다. 필립이 총을 들자, 에커가 그를 쏘았다.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필립은 삼촌 집으로 옮겨졌다. 아들을 보자마자, 해밀턴은 친구인 데이빗 호삭 의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다.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기절한다. 슬픔에 빠진 해밀턴 가족들은 필립 옆에 앉아 그들 인생의 최악의 밤을 보냈다. 필립은 다음 날 새벽 5시에 숨을 거뒀다.

해밀턴은 절대 위로 받을 수 없었다. 로버트 트로프는 그의 오랜 친구의 슬픔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해밀턴만큼 완전히 비탄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역력했다.” 가족들의 비통함은 더 커졌다. 큰 오빠를 아주 좋아했던 17살 안젤리카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져서 다신 회복하지 못했다.

그 해 해밀턴 가족들이 유일하게 밝았던 순간은 장남의 죽음 이후 오래지 않아 여덟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다. 그들은 아이에게 필립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해밀턴은 필립의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지만, 뉴욕 정치에 대한 관심은 천천히 살아나고 있었다. 놀랍게도 1802년, 공화당의 아론 버가 연방주의자 회의에 나타났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정직한 남자들의 연합”을 위한 건배를 제안했다. 버가 정직한 사람인가? 그럴 리가. 해밀턴은 버가 연방주의자의 표를 얻기 위해 이 모임에 왔다고 추정했다.

해밀턴 생각이 맞았다. 버는 1804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뉴욕 주지사에 출마

한다고 선언했다. 해밀턴은 1795년 선거에서 버가 주지사가 되는 것을 바랐던 마음 그 이상으로, 1804년 선거에서 버가 뉴욕 주지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경력 중 이 시점은 해밀턴이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을 때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지사에 출마하는 뉴욕 대법원의 모건 루이스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뿐이었다. 루이스가 선거에서 승리하자, 화가 난 버와 그의 친구들은 해밀턴을 비난했다. “만약 해밀턴 장군이 버 대령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버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도 남았다.” 버의 지지자들이 격노했다.

결국, 해밀턴은 아론 버에게 격분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버의 맨하튼 컴퍼니 회사가 브롱크스 강에서 뉴욕 시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는 물심양면으로 일했었다. 버가 교활하고 기만적인 인간이란 걸 알았으면, 그는 맨하튼 컴퍼니가 사기라는 걸 깨달았어야 했다. 버는 단순히 자신의 은행을 열기 위한 핑계로 회사를 이용했던 것이었다. 해밀턴은 새로운 맨하튼 은행이 자신이 만든 뉴욕 은행과 미국 은행 뉴욕 지점 사업에 피해를 줄까 우려했다. 그리고 맨하튼 은행은 실제로 해를 끼쳤다.

해밀턴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버에 대한 낮은 평가를 내렸다. 저녁 식사 손님이 자신의 말을 편지에 쓰고, 또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리라는 걸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격분한 버는 해밀턴에게 공개적인 모욕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가 언급했던 내용을 설명해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해밀턴은 거부했다. 자존심이 강한 그는 자신의 초라한 과거에 대해 방어적이었다. 그리고 결투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는 항상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싸워왔다. 편지들이 두 남자 사이에서 오고 갔다. 해밀턴은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은 견지에서 문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난 그냥 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무조건 결과를 따를 겁니다.” 라고 썼다.

버는 해밀턴이 “항상 서로 정중하게 행동했다”고 말했을 때, 그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중했던 안했던, 버는 매우 확실히 해밀턴과 “같은 견지”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 “결과”로, 1804년 6월 버는 해밀턴에게 결투를 신

청했다.

결투는 용맹과 지도력의 상징으로 군 장교들 사이에선 흔한 것이었다. 그리고 해밀턴 장군과 아론 버 대령은 둘 다 군인이었다. 해밀턴은 6번의 결투에 도전자와 입회인으로 참여 했었지만 실제로 결투를 벌이진 않았다. 결투 중 죽은 아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끔찍한 고통을 안겼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버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아내와 일곱 명의 아이들이 있는 해밀턴은 그랜지 저택을 지으면서 생긴 많은 빚들이 있었지만 버보다 잃을 게 더 많았다. 어쨌든, 버는 결혼해서 멀리 떨어져 행복하게 살고 있는 외동딸만 있는 홀아비였다. 그러나 그도 해밀턴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이 결투는 해밀턴에게 매우 중요했다. 그는 그의 입회인 나다니엘 펜들턴에게 공중에 발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편지에 “첫발은 쏘지 않고 그냥 버리려고 하고 있네. 그리고 두 번째 발도 보류할까 생각 중이네. 그러면 이 두 번의 기회가 버 대령에게 잠시 멈추고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썼다.

해밀턴의 마지막 걱정거리는 가족과 그가 귀화한 나라의 미래였다. 그는 유언장을 썼고 그의 법률 사건들도 마무리 지었다. 그는 결투 전 2주간 그랜지 저택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픈 로버트 트로프를 병문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엘리자에게 그가 죽었을 경우 공개될 긴 사랑의 편지를 썼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결투 전날 밤, 그의 뉴욕 집에서 잠을 잤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는 아내에게 바치는 찬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그가 막 완성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다니엘 펜들턴과 데이빗 호삭 박사였다.

이제 강을 건너 위하큰으로 갈 시간이었다.

## 제9장

결투자가 되어: 1804년 7월 11일



해밀턴 vs. 버

아침 7시 정각, 알렉산더 해밀턴과 버는 결투장 한 쪽으로 걸어갔다. 해밀턴의 입회인 나다니엘 펜들턴과 버의 입회인 윌리엄 반 네스가 두 결투자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다. 펜들턴이 이겼다. 하지만 그와 해밀턴은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북쪽을 택한 것이다. 절벽 바위의 각도 때문에, 해밀턴은 강물에 반사되는 낮게 비추는 아침 햇빛을 마주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버는 해를 등쳐 상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되었다.

펜들턴과 반 네스는 다시 제비를 뽑았다. 이번은 누가 이 결투를 감독할지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이번에도 펜들턴이 이겼다. 입회인들이 10 걸음을 물러섰다. 해밀턴과 버는 자신들의 위치에 섰다.

버가 결투 신청자였기 때문에, 해밀턴에게 무기 선택권이 있었다. 그는 3년 전 아들 필립이 죽은 결투에서 사용했던 화승총을 택했다. 각 권총은 몇 파운드 정도의 무게가 나갔고 대형 납 총알을 사용했다.

두 번째 총알을 장전하고 공이치기를 잡아당겼다. 딸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

리는 고요한 아침이었다. 반 네스는 버에게 그의 총을 건넸지만 펜들턴은 왠지 망설였다. 그는 해밀턴에게 발사 속도가 더 빠른 촉발 방아쇠를 쓰겠냐고 물었다.

“이번에는 아니야.” 해밀턴이 대답했다.

공이치기가 당겨진 총을 건네면서, 펜들턴은 규칙을 설명했다. 두 남자에게 준비가 됐는지 물었다. 결투 준비가 되면, “조준”이라고 말하고 후에 그들이 발사를 하는 것이었다. 만약 한 명만 발사하면, 그는 상대 입회인이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 다음에야 상대방이 응사할 수 있었다.

버와 해밀턴은 상대 옆으로 섰다. 둘 다 오른발을 왼발 앞 60센티미터 정도에 두고 그들의 머리를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돌렸다. 기본적인 결투 자세로 최대한 표적을 좁힐 수 있었다. 그리고는 펜들턴이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다. 해밀턴은 준비가 안됐다. 강물에서 반짝거리는 햇빛이 그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멈추시오.” 그가 요구했다. “빛 때문에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한 손으로 쓰며 상대 쪽 여러 방향에 총구를 겨눴다. “이러면 되겠군.” 그는 말했다. “계속 진행 하십시오.”

펜들턴이 준비가 됐냐고 다시 묻자, 두 남자 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조준”

두 남자는 총을 들어 올리고 발사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버의 총알은 해밀턴의 오른쪽 엉덩이 위 복부 쪽을 공격했다. 반면에 해밀턴의 총알은 버로부터 1미터 떨어진 곳을 맞춰, 지면 3미터 위에 있는 나뭇가지를 산산조각 냈다.

버의 입회인 윌리엄 반 네스는 먼저 발사한 사람은 해밀턴이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해밀턴의 입회인 나다니엘 펜들턴은 버가 먼저 발사했고, 해밀턴의 발사는 버의 총을 맞고 난 후에 나온 반사 작용이었다고 죽을 때까지 주장했다. 해밀턴이 총을 맞았는지 아닌지는 의심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축 늘어지면서 왼쪽으로 몸이 돌아간 상태로 신음하며 땅에 쓰러졌다. “나는 이제 죽겠군.”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아수라장이 되었다.

펜들턴은 오솔길 위로 뛰어 올라갔다. “호삭 박사!” 그는 소리쳤다.

버가 부상자에게 다가갔지만, 반 네스가 그를 막았다. 이 결투로 법정으로 갈 경우, 호삭 박사가 버를 봤다고 진술할 수 있었다. 호삭 박사가 올라오기 전에 두 명의 남자가 오솔길을 급히 내려가고 있을 때, 반 네스는 우산을 펼쳐 버의 얼굴을 가렸다.

반 네스와 함께 배에 올라타자마자, 버는 울부짖었다. “내가 가서 그와 얘기해야만 해.” 버가 피 범벽이 된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걸 애써 막은 후, 반 네스는 직접 상황을 살피기 위해 다시 오솔길을 달려 올라갔다.

호삭 박사는 절벽 바위에 도착 후, 펜들턴에게 안겨 바위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는 해밀턴을 발견했다. 의사는 부상자를 확인했다. 총알로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간을 관통해서 척추에 탄환이 박혀있었다. 호삭 박사, 펜들턴 그리고 뱃사공들이 해밀턴을 옮겨 배에서 가능한 한 그가 편안할 수 있게 했다.

그들은 배를 저었다.

곧 다가오는 뜨거운 7월에 어느 날, 그들은 밝은 햇빛을 받으며 허드슨 강을 지나고 있었다. 그 때, 해밀턴이 눈을 떴다. “잘 보이지가 않아.” 그가 웅얼거렸다. 그리고 나서 속삭였다. “저 총 좀 잘 챙겨. 발사돼서 다칠지도 몰라. 펜들턴은 내가 버에게 총을 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 분명히 해밀턴은 방아쇠를 당긴 기억이 없었다.

다리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의식까지 완전하지 않던 해밀턴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휩싸여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노젓기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최대한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노를 젓는 뱃사공들이 만들어내는 물살이 철썩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몇 시간 전에 떠났던 항구에 다시 다다를 때, 해밀턴이 그의 아내에 대해 말을 했다. “아내가 바로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돼. 그녀에게 희망을 줘야해.” 그가 웅얼거리며 말했다.

해밀턴의 친구 윌리엄 베이야드가 항구 끝에 서서 배가 다가오는 걸 보고 있었다. 해밀턴의 부상이 아주 심각하다는 걸 알고, 그는 눈물을 터트리며 그의 하인을 보내 간이침대를 가져오게 했다. 간이침대 위에 해밀턴을 눕힌 후, 하인들이 베이야드 집 2층에 있는 침실로 그를 옮겼다.

49살 알렉산더 해밀턴 장군은 다음 날 1804년 7월 12일 오후 2시에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 앞에서 눈을 감았다.



해밀턴의 사망 소식은 미국 전역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보스톤과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그들 최초의 동료 시민”을 위해 상복을 입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은 뉴욕이었다. “지역 사회 전체가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다” 해밀턴이 사임한 후 워싱턴의 재무장관으로 일했던 올리버 월콧 주니어는 비통해 하며 말했다.

1804년 7월 14일, 뉴욕의 가장 훌륭한 시민을 위한 국장을 치렀다. 뉴욕 시민들은 그들의 팔에 검정색 띠를 둘렀다. 모든 가게들은 문을 닫았으며, 교회의 종들이 조종을 울렸고, 항구의 선박들은 조기를 달았다. 북소리에 맞춰 민병대들이 장례 행렬을 이끌고 뉴욕의 도심 거리를 지나 트리니티 교회로 갔다. 주인을 잃은 해밀턴의 말은 장군의 빈 장화와 박차를 등자에 뒤집은 채, 관을 싣고 8명의 상여꾼 뒤를 따랐다. 그 다음 해밀턴의 4명의 아들과 뉴욕 각계각층 모든 분야의 대표자들이 2시간 동안 침울한 행렬과 함께, 거리와 건물 옥상을 가득 매운 흐느끼는 수천 명의 뉴욕 시민들을 지나갔다.

트리니티 교회에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장례식을 마치고, 관은 트리니티 묘지에 묻혔다. 관이 무덤 안으로 내려지자, 민병대가 무덤 주위로 정사각형 대열을 만들었고 공중에 일제히 세 발을 사격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을 위한 모든 군장의 예는 오래 전 전쟁에서 이름을 떨치고 싶어 했던 14살 소년에게 꼭 어울리는 작별 인사였다.

## 에 필로그

아론 버는 뉴저지에서 알렉산더 해밀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뉴욕에서는 경범죄로 기소되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달아났다. 그 후 몇 달간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남부 지역 전체를 다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한 후, 버는 1804년 11월 워싱턴에 도착했다. 여전히 상원 의장 권한 대행직을 유지중인 버 부통령이 상원 개회를 주재하자, 한 상원의원은 한탄하며 말했다. “우리는 진짜 불운에 맞닥뜨렸다.”

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 해까지 계속해서 상원을 주도하고 있던 버는 대법원의 사무엘 체이스 탄핵 심판도 주재했다. 하지만 버는 1805년 3월 4일, 조지 클린턴이 토마스 제퍼슨의 새로운 부통령으로 취임하자, 냉대받기 시작했다.

수년 간 세운 계획을 갖고, 1805년 봄, 버는 그 당시 서부지역인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 인디애나 준주, 미시시피 준주 그리고 뉴올리언즈를 순회했다. 여행 중에 그는 우연히 미 육군 사령관 제임스 윌킨슨 장군과 뉴저지 상원 의원 조나단 데이튼 그리고 부유한 이상주의자 하먼 브레널하셋을 만난다. 네 남자는 루이지애나를 정복해서 서부 주 전체를 포함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탐험대를 조직한다. 이 음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지금도 완벽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멕시코 합병도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한다.

지지자들이 버 주위로 모이면서, 제퍼슨 대통령은 항간에 떠도는 반역에 대한 소문에 주목했다. 1806년 7월, 버는 계획의 윤곽을 그리고 있는 윌킨슨 장군에게 암호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러나 윌킨슨 장군은 그들의 탐험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들 모두 반역죄로 교수형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공황 상태에 빠진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는 암호화된 버의 편지를 제퍼슨 대통령에게 넘긴다. 증거를 손에 넣은 제퍼슨은 그 음모를 종결시켰다.

몇 번의 체포와 위기일발의 상황들 그리고 여러 번의 법정 출두 후, 버는 버지니아 황무지로 탈출했다. 그는 1807년 2월에 잡혀서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반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제퍼슨 대통령은 버의 유죄를 확신했지만, 헌법은 반역 행위의 정확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었다. 헌법 지침에 충족하지 않아서, 버

는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대중의 분노와 살해 협박을 1년 동안 견디다가, 버는 유럽으로 도피한다. 평생 의연했던 버는 서부 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외화 기금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하지만 선뜻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4년 후, 버는 뉴욕으로 돌아와 법률 사무소를 시작했다.

1812년, 버는 하나 밖에 없는 손자가 병에 걸려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몇 달 후, 딸 시오도시아까지 바다에서 실종된다. 어린 시절, 연속으로 가족들을 잃어서 고아가 되었던 것처럼, 그는 또 한 번 이중으로 가족을 잃는 고통을 겪는다.

부유한 미망인 엘리자 주멜과의 짧은 결혼 생활 후, 80살 아론 버는 1836년 9월 14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눈을 감았다. 도시 전체가 애도하며 뉴욕 트리니티 교회에서 군장의 예를 다해 알렉산더 해밀턴의 장례가 치러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론 버는 간단한 장례로 뉴저지 프린스턴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묘역 근처에 묻혔다.

## 참고문헌

*The Annals of America*. Vols. 2,3,4. Chicago: Encyclopedia Britannica, Inc.,1976.

Athearn, Robert G.(1963) *The American Heritage New Illustrated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Vol.4, *A New Nation*. New York: Dell Publishing Co.,Inc.

Bobbé,Dorothie. "The Boyhood of Alexander Hamilton." *American Heritage*, Vol. VI, No.4 (June 1955), pp.4-9; 96-99.

Brookhiser, Richard.(1999) *Alexander Hamilton: American*. New York: The Free Press.

Chernow, Ron.(2004) *Alexander Hamilton*. New York: Penguin Press.

Chidsey, Donald Barr.(1967) *The Great Conspiracy*. New York: Crown Publishers, Inc.

Daniel, Jonathan.(1970) *Ordeal of Ambition: Jefferson, Hamilton, Burr*.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Davis, Matthew L. *Memoirs of Aaron Burr with Miscellaneous Selections from His Correspondence*. Vol.I. Boston, Massachusettes: Indy Publisher, no date.

Editors of *American Heritage*. *The American Heritage Book of the*

*Presidents and Famous Americans. Vol.I, George Washington and John Adams*, New York: Dell Publishing Co.,Inc.,1967.

Flexner, James Thomas.(1953) *The Traitor and the Spy*.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_\_\_\_\_.(1978) *The Young Hamilton: A Biograph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Hamilton, Alexander.(2001) *Writings*.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Isenberg, Nancy.(2007) *Fallen Founder: The Life of Aaron Burr*. New York: Viking.

Jackson, Kenneth T., and Valerie Paley. "History Makers: A Conversation with Ron Chernow." *The New-York Journal of American History*, No. 3 (Spring 2004), pp.59-65.

Kennedy, Roger G.(2000) *Burr, Hamilton, and Jefferson: A Study in Charact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omask, Milton.(1982) *Aaron Burr: The Conspiracy and Years of Exile, 1805-1836*.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_\_\_\_\_.(1979) *Aaron Burr: The Years from Princeton to Vice President, 1756-1805*.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McCullough, David.(2005) *1776*. New York: Simon & Schuster.

Pearson, Michael. "The Siege of Quebec, 1775-1776." *American Heritage*, Vol. XXIII, No.2 (February 1972), pp.8-15;104-8

Randall, Willard Sterne. "Why Benedict Arnold Did It." *American Heritage*, Vol. XLI, No.6 (September/October 1990), pp.60-73.

Roberts, Kenneth, ed.(1938) *March to Quebec: Journals of the Members of Arnold's Expedition*. New York: Doubleday, Doran & Company, Inc.

Rogow, Arnold A.(1998) *A Fatal Friendship: Alexander Hamilton and Aaron Burr*. New York: Hill and Wang.

St. George, Judith.(2001) *John and Abigail Adams: An American Love Story*. New York: Holiday House.

\_\_\_\_\_.(1991) *Mason and Dixon's Line of Fire*. New York: G. P. Putnam's Sons.

Vail, Philip.(1973) *The Great American Rascal: The Turbulent Life of Aaron Burr*, New York: Hawthorn Books, Inc.

Wandell, Samuel H., and Meade Minngerode.(1925) *Aaron Burr*. Vol. Two. New York: G. P. Putnam's Sons.

Webb, James R. "The Eternal Encounter." *American Heritage*, Vol.XXVI, No.5 (August 1975), pp45-52; 92-93.

## 작가 소개

주디스 세인트 조지는 45권의 작품을 쓴 훌륭한 작가이다. 대표 저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로 콜더컷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뉴욕과학아카데미어워드에서도 수상했다.

그녀는 뉴저지 웨스트필드에서 성장했고 스미스 컬리지에 입학했다. 졸업과 결혼 이후, 그녀는 1년간 메사추세츠 케임브릿지에 있는 독립전쟁시기 조지 워싱턴의 본부였던 역사적인 건물 롱펠로우 하우스에서 거주했다. 그녀의 역사를 향한 깊은 사랑은 그곳에서의 경험 덕분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항상 조사가 얼마나 힘든지 설명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재미는 조사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제가 쓴 인물들이 저에게 생기를 준 것처럼 독자들을 위해 저도 그 인물들에게 생기를 주고 싶습니다.”

다른 책들을 조사하는 동안 알렉산더 해밀턴과 아론 버에 대해 자주 읽으면서 세인트 조지는 이 두 명의 전설적인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주디스 세인트 조지는 코네티컷에서 남편과 살고 있고 4명의 자녀를 두었다.



## 두 남자의 전쟁

1804년 7월 11일 이른 아침, 뉴저지 위하큰의 결투장에서 두 남자가 만났다. 결투가 끝나자, 한 남자는 죽고, 또 다른 남자는 도망자가 된다.

알렉산더 해밀턴과 아론 버는 신기하게도 유사한 삶을 살았다.

두 사람 다 어린 시절 고아였다. 그리고 대학에서 법을 공부한 뛰어난 학생이었다. 둘 다 조지 워싱턴 장군 밑에서 장교로 군 복무를 했고, 후에 전쟁이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각자 새로운 국가의 새롭게 생긴 정부에서 근무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은 새벽에 마주해서 결국 한 사람은 죽음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수치심으로 끝이 나는 결투를 벌인 걸까?

주디스 세인트 조지의 생생한 전기는 각 장별로 이야기를 전개하며 미국 건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 두 복잡한 인물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다.

“철저한 조사로 주요 자료를 이용해서 독자들이 해밀턴과 버가 정말로 어떤 인물인지 알려주고 미국 역사에 그들의 삶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해준다.”

-보야